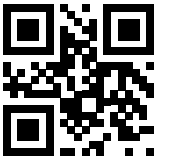




# SEOUL NATIONAL UNIVERSITY U.S. ALUMNI NEWS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보  
www.snuaa.org / news@snuaa.org



제323호 2021년 3월 SNU Alumni Asso. USA | 158-14 Northern Blvd. 2nd Fl., Suite UL-2 Flushing, NY 11358 | Tel: 718-463-3131 | 발행인: 신응남 편집인: 오치주

“미주 동·서부를 연결하며 소통의 장을 펼치다”

## 팬데믹 후 인류미래의 전망

### 브레인 네트워크 세미나 BRAIN NETWORK SEMINAR

**3/27/2021**  
(토) 오후 8시 동부/오후 5시 서부

ZOOM ID 687 026 0318 PW 307375

**신응남** 회장  
서울대미주동창회

**하용술** 교수  
공통준비위원장

**김재훈** 박사

**강연스케줄**

**1부**  
강연1) 박재한 대표 <인공지능과 COVID-19의 면역반응>  
강연2) 이지원 박사 <COVID-19 테스트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강연3) 우정원 박사 <차세대 COVID-19 백신개발 전략>

**2부**  
강연1) 전재성 교수 <코로나 시대 국제정치 변화와 한국>  
강연2) 이효준 박사 <인종간의 정의와 평등에 관한 데이터 연구>  
질의응답 및 토론

**공동주관** 브레인네트워크 | 워싱턴주 지부(회장: 이명자) SNU FORUM | 워싱턴 D.C. 지부(회장: 박상근)

**주최** 서울대미주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남명호**  
Moderator  
이노바연구소  
메디컬 디렉터

**박재한**  
'나우젠(NAUGEN)'  
Founder & CEO

**이지원**  
Psomagen, Inc.,  
Clinical Services  
디렉터

**우정원**  
생명공학기업  
Genexine  
CEO/COO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이효준**  
Senior Data Scientist  
S&P Global

## 팬데믹 이후의 인류를 말한다

3월 27일 자연·사회과학 전문가 5인... 미 전역 동문 온라인 초청 강연

### / 브레인 네트워크 세미나 /

미주동창회에서는 오는 27일 -브레인 네트워크 세미나를 실시한다.

올해 주제는 '팬데믹 후 인류미래의 전망'으로 과학을 통해 인류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갈 연대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대회 첫 온라인 개최로 전미 주 서울대 동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동부시간 8시(서부 5시)부터 약 2시간 정도 Zoom을 통해 이루어진다.

미주동창회장 신응남 회장은 "아직도 코비드가 인류를 위협하는 지금, 우리가 겪는 팬데믹같은 상황은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찾아왔다. 불멸을 꿈꾸던 국가의 문명의 쇠퇴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부와 내부의 도전 역전시킬 수 있는 '여력(餘力)의 고갈'에 의해서 도래했다.

위대한 기업은 그들의 잉여자본을 과감하게 R&D에 투자함으로, 그들의 여력을 키워간다. 경제적인 용어인 R&D는 막대한 기회비용을 미래를 위해 지불한다는 것이다.

이번 BNT 세미나 개최도, 인류문명에 도전해온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들의 여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면면하게 이어질 미주동창회의 전통과 역사 속에서, 뒤 따라올 후배들에게 오늘 우리들의 노력이 기억되어 정당한 평가를 받기

바란다."며 동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Moderator인 남명호 이노바 연구소 메디컬 디렉터를 주축으로 1부 자연과학 세미나에서는 박재한 나우젠 CEO와 이지원 Psomagen 크리니컬 디렉터가 각각 인공지능과 Covid-19의 면역반응, Covid-19 테스트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발표한다.

박재한 대표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바이러스 반응에 대한 정보와 통찰력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 또한 COVID-19 환자에 대한 면역 프로파일링의 최신 산업 동향에 대해서도 분석할 예정이다.

이지원 박사는 최근 Psomagen의 감독관을 활동하며 Covid-19의 분자테스트를 개발, 사

용 승인을 받았다. 이에 현재 감염 테스트 개발 상황과 미래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제넥신 개발본부장(CDO/COC)로 활동중인 우정원 박사는 제넥신(Genexine)이 세계 최초 신약 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생명공학 기업으로 발돋움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우 박사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한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에 대항하기 위한 차세대 COVID-19 백신개발 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사회과학 분야를 다룰 2부에서는 전재성 서울대 교수와 이효준 S&P Global 수석 데이터 과학자가 각각 인종간 정의와 평등에 대한 데이터 연구, 코로나시대 국제정치 변화와 한국에 대해 강연한다.

데이터 과학자로 활동중인 이효준 박사는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Covid 이후의 인종, 소득 차이로 인한 질병 위험도 등 사회적 현상과 사례를 지표를 통해 분석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동문들은 회의(ID: 687 026 0318, PASSCODE: 307375)로 접속하면 된다. 이번 특강에 참여나 후원 등,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서울대미주동창회(718-463-3131)로 연락하길 바란다.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113

미주동창회 유지, 성장 위하여 동문여러분의 참여, 후원 요청!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1년: \$75 / 2년: \$150 / 후원금: \$100 ↑

PAYABLE TO SNUAA-USA 아래의 주소로 회비 납부 바랍니다

SNU ALUMNI ASSOCIATION USA |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 왜곡·거짓된 일본의 3.1절기사 외신통해 반박

## 독립운동가와 미주한인들, 일제의 만행에 펜과 진실로 맞서

### 3.1절 102주년

뉴스(News)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새로운 소식이지만 요즘은 그 뉴스가 출처가 어디인지, 사실여부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언제 발표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 그 옛날, 한 동네에 한 대 밖에 없던 텔레비전에 뉴스를 할 시간이 되면 동네사람들이 웅기 쯡기 모여 귀를 기울이던 시절의 가치와는 큰 차이가 있게 된 것이다. 그 때에는 텔레비전에서 전하는 내용이면 모두 믿고 따르던 시절이기도 했다.

1919년 3월 1일, 일제로 부터 독립을 위해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훌쩍 넘어버렸다. 몰래만든 신문을 돌려보며 독립의 힘을 키워나가던 우리민족은 우리의 글과 얼을 일제에 뺏기지 않았으며 결국은 독립했다. 독립운동은 한국 내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독립운동가들이 미국과 중국 등의 언론을 통해 3.1 운동의 진실을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독립된 나라의 존재를 알렸다. 당시 미국에 있던 안창호 등이 국민회를 통해 각 지회에 연락했으며, 서재필, 이승만, 정한경 등이 일본의 왜곡된 가짜뉴스에 맞서 미언론을 상대로 독립운동을 알렸다.

31운동 관련 외신보도의 첫 물꼬를 튼 곳은 우리 독립운동의 산실과도 같은 상하이(上海)였다. 31운동이 일어난 지 사흘 뒤인 3월 4일 상하이 영문 대륙보에 독립운동을 위해 한국인들이 일제히 봉기했다는 소식이 실린 것이다. 31운동이 영어(英語) 기사로 세계인들에게 알려진 첫 계기가 됐다.

이어 한국에서 온 독립운동가들로부터 '독립선언문'을 입수한 중국 언론은 31운동에 대한 동정적 보도를 하기 시작했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던 국민당 기관지인 민국일보는 31운동과 독립선언 사실 보도에 이어 익명의 한인 여학생이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독립 호소 편지 전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1919년 3월 9일 중국 국민당 기관지인 민국일보(民國日報)에 실린 31운동 관련기사. 민국일보는 이날 '조선의 혁명운동', '조선인의 독립선언' 제하 기사를 통해 31운동 소식을 처음 전했다. 이후에도 31운동 발생 및 경과에 대해 끈질기게 보도를 이어갔다.

31운동 소식이 국제여론의 주무대였던 미국에 당도한 것은 3월 10일이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된 3.1 운동과 민족대표들이 인사동 태화관에 모여 진행한 독립선언식이 이후에도 31운동 발생 및 경과에 대해 끈질기게 보도를 이어갔다. 당시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미국 내의 독립운동 거점이었던 샌프란시스코의 대한민국 민회로 발송된 전보(cablegram)를 인용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한국은 파리평화회의에서 독립국임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3월 1일에 주요 도시에서 독립을 선언했다.



▲1919년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창간된 월간지 헤이차오(黑潮).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박사가 촬영해 널리 알려진 당시 서울 31운동 사진.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1919년 4월 12일 자에서 "일본군이 대학살을 개시했다"며 서울에서 3시간 만에 1천 명이 학살됐다는 내용을 전했다.

그러나 이 소식은 일본의 통제로 그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내용으로 한국의 반일 저항 운동 소식을 일제히 지면에 실은 3월 10일 자 미국 신

에서는 독립운동이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아니다. 특별한 일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호놀룰루 애드버타이저 3월 15일 자 1면에 실린 도쿄발 일본계 니푸지지(日布時事)의



에서는 독립운동이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아니다. 특별한 일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호놀룰루 애드버타이저 3월 15일 자 1면에 실린 도쿄발 일본계 니푸지지(日布時事)의

짜내리는 아들 기사에 일본이 조직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이런 일본의 거짓 주장을 좌시하지 않았다. 당시 뉴욕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헨리 정(정한경)은 일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NYT에 실는다.

그는 "한국인은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있는지 증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한다"며 "능력이 없다는 가정하에 기회를 박탈하는 건 어린 여자아이에게 수영을 배워야 한다면 서 정작 (위험하니) 물가에 가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적었다.

고정휴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미국은 애초 한국 문제를 일본의 내정으로 여기고 간섭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서재필의 자서전에는 31운동 보도 이후 미 국무부가 일본대사를 불러 여론을 환기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전했다. 고 교수는 "이후 일본은 조선 총독을 바꾸고 문화통치를 시작했다"며 "국호도 없는 동양의 작은 나라가 미국 주류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해 일본의 식민지 통치 방향에 영향을 준 건 대단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효과적으로 우리나라를 장악하기 위해서 수많은 약행을 저질렀고, 언론의 장악은 그들의 필수 과제와도 같았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실패했고, 총과 칼을 든 수많은 독립 운동가들이 우리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몸을 바쳤다면 독립선언문을 쓰고 해외언론에 한국의 진실은 알린 독립운동가들과 언론인들은 길었던 일제강점기 속에서 우리 민족의 정신을 지켜나가는 데에 앞장섰다.

31운동 102주년을 맞이해 거짓으로 언론을 선동하던 일본에 맞서 진실과 정의로 승리를 이뤄냈던 독립운동가와 언론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일부 기사 발췌: 외신속 31 운동(연합)>

## 차차기(17대)회장 출마 소감



이상강 (의대 70)

저는 의예과 70 학번으로 약 40년간을 수련의와 teaching staff 또 chair of Department 로 근무하고 2015년 가을에 은퇴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한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수십년이 흐르고 나이는 70이 넘었습니다. 선배님들께는 송구스런 말씀이지만 저도 이제는 늙은 축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여러 전회장님들과 임원들의 수고와 노고를 지켜보면서 한편으로는 겁도 났지만 이번에는 제가 한번 나서서 총동창회에 봉사를 하려고 차차기 총동창회장 후보로 출마합니다.

사정이 어려운 동문들, 예를들어 유학생이나 학위과정중인 동문들에게는 동창회비를 면제하고 동창회 모임에 참가할 경우에는 교통비와 숙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COVID-19 때문에 동문들께서 힘이

제가 Heartland에 위치하고 있어서 동서

해안으로의 거리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동창회간의 방문및 소통은 보다 쉽게 이룰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목표는 동창회 재정의 안정을 이루겠습니다.

동창회 재정은 주로 회비와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비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재정문제 전반을 제가 개인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또한 동창회보 수준을 잘 유지하고 아직 낡지만 이번에는 제가 한번 나서서 총동창회에 봉사를 하려고 차차기 총동창회장 후보로 출마합니다.

사정이 어려운 동문들, 예를들어 유학생이나 학위과정중인 동문들에게는 동창회비를 면제하고 동창회 모임에 참가할 경우에는 교통비와 숙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COVID-19 때문에 동문들께서는 별로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COVID-19 이 어느정도 control 되면 동문간의 친목과 동창회의 활성화를위해 단체여행, 체육대회, 콘서트 등을 기획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세미나를 계속 개최하고 개선할 것이있으면 그러하겠습니다.

또한 동문들께서 찬성하신다면 미주총동창회의 사무실/회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미주동창회가 잘 운영이 되어왔지만 permanent한 사무실/회관이 마련되면 동창회의 앞날에 대단한 발전이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수행하면 일의 능률이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communication과 IT 기술등의 발전으로 혹은 동창회장이나 임원들이 다른지역에 있다해도 업무수행에는 별로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동창회보를 예를 들자면 매 동창회장의 친목과 동창회의 활성화를위해 단체여행, 체육대회, 콘서트 등을 기획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세미나를 계속 개최하고 개선할 것이있으면 그러하겠습니다.

또 길건너 의과대학은 건물들이 정신없이 들어서고 복잡해져서 옛날의 함춘원의 풍치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미주동창회에 참여하여 선후배님들을 만나보면 옛날 학교다니던 시절이 절로 생각합니다.

이상 두서없이 말씀 드렸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동창회장으로 선출해 주신다면 더욱 화목하고 능률적이며 발전하는 동창회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석 (상대 81)

## 기부금 비용 공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0년에는 비즈니스와 가정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훌륭한 동문들이 모교나 동창회에 많은 기부를 하고 계신다.

올해 세금보고, 2020년 세금 보고시에는 기부금이 어떻게 공제가 되고 그 전과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현금 기부는 얼마전 의회를 통과한 법률에 의해 개인은 조정소득금액 (Adjusted gross income) 10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현재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여 AGI 60%까지만 가능하던 것이 상황조정 된 것이다. 법인은 과세 대상 소득 25%까지 기부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역시 10%까지만 가능하던 것이 상황조정 된 것이다. 법인은 과세 대상 소득 25%까지 기부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역시 10%까지만 가능하던 것이 상황조정 된 것이다. 법인은 과세 대상 소득 25%까지 기부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역시 10%까지만 가능하던 것이 상황조정 된 것이다. 법인은 과세 대상 소득 25%까지 기부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역시 10%까지만 가능하던 것이 상황조정 된 것이다.

이 있다. 레스토랑 등 관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체는 식품 재고를 기부함으로써 과세 소득 25%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이는 기존 15%에서 인상된 내용이다. 다만 2020년 안에 국제성이 지정한 자선 단체나 재단에 실제로 지급해야 한다.

관련 세법 섹션에 의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체(Qualified Organizations)는 교회와같은 종교 시설, 비영리 의용 소방대, 재향 군인 단체 등으로 어떤 기관이 해당 하는지는 국제성 홈페이지에서 조직 명칭 또는 고용주 식별 번호를 정확히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개인이나 정치 조직 까지만 가능하던 것이 상황조정 된 것이다. 기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 이를 확인한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국제성이 지정한 자선 단체나 재단은 대부분 연초가 되면 기부금 증명 내역을 발

급하는데, 이런 서류들을 받아 항목 공제 (Itemized Deduction)가 가능한지 살펴야 한다. 총 기부금액 외에 재산세 등으로 낸 세금과 차량 등록 갱신비용, 모기지 이자 등을 합하여 기본 공제 금액 (싱글 12,400불, 부부 24,800불) 보다 많으면 항목 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만약 항목 공제 금액이 기본 공제 금액보다 적더라도 기본 공제 금액만큼은 세금 보고서 무조건 공제 받는다. 올해는 예외적으로 기본 공제를 받더라도 현금으로 기부한 300불까지는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가 따로 세금 보고를 하는 상황에서는 각각 300불씩 적용이 가능하지만 현금 외 기부는 해당되지 않는다.

개인 연방 소득세 구간이 10%에서 최대 37%에 이르는 현재, 기부금 공제를 포함한 항목 공제가 가능하다면 그 금액에 자

신에게 적용되는 세율만큼 세금이 절약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또한 세금 전략적인(Tax planning) 관점에서 1년 이상 장기간 보유한 주식이 크게 올랐을 경우, 이를 처분하여 생긴 현금으로 기부하는 것과 주식을 바로 기부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후자가 훨씬 유리하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으면서 기부 당시 시가 상당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항목별 공제 금액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이다.

현 재정 상황이 여유롭다면 이를 사회에 환원하면서 동시에 자신도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이를 통해 더불어 사는 우리 사회, 우리 모교, 우리 동문회가 더욱 튼튼해 질 수 있는 것이다.





민일기 회장(왼쪽)이 최용준 신임회장에게 동창회기를 전달.

# 남가주 총동창회 이취임식 개최

## 최용준 신임회장 공식 취임... “세대간 교량역할 최선”

지난 2월 13일 남가주 총동창회(회장:민일기, 약대 69) 이취임식이 한귀희 전 총동창회장(미대 68)이 제공한 정원에서 열렸다. 정기총회는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 모임이 가능할 때까지로 연기했다. 신규 임원 18명이 모인 이 행사에서 홍성선 총무국장(약대 72)의 사임보고, 박제환 재무국장(문리대 75)의 재무보고에 이어, 민일기 총동창회장의 신임회장 최용준(수의대 81) 동문과 차기회장(2022년 회장) 박제환 동문 인준이 있었다. 2020년도 장학생으로는 Angela Healin Kweon과 Yuann Kim이 선정되었다.

동창회기 이양에 이어 최용준 신임회장이 민일기 이임회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하였다. 다음은 오세정(문리대 71) 서울대학교 총장과 채준(상대 86) 서울대 발전기금 상임이사, 한국에서 보내 온 축사를, 그리고 현재 뉴욕에 소재하는 미주동창회 신용남(농대 70) 회장의 축사를 영상으로 전달했다.

성공리에 개최했고, 동창회 데이터 베이스에 누락되어 있었던 새로운 동문 1,700명을 발굴하여 추가했습니다. 더하여, 미주동창회 재정자립을 위한 300만불 모금 캠페인 활성화를 통해 현 15대 임기 중 총 43명의 종신이사를 추대하고, 1월 현재 20여만불을 추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오는 3월 27일에는 동부와 서부지부를 잇는 소통의 장을 펼치며 브레인네트워크 세미나 개최도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 후, 6월 말에는 제 30차 평의원 회의를 여러분의 남가주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 단체의 가치는 같은 비전을 공유한 개인들이 모여, 어떠한 비범한 일을 해내었느냐로 평가될 것입니다. 동문 여러분! 함께 모여 협력하고 소통하며 공동의 비전을 향해 나아 갑시다. 올해에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전했다.

민일기 회장은 이임사에서 “이번에 46대 총동창회장으로 취임하는 최용준 회장은 기존의 역대회장들과 달리 80년대 학번이고 참신한 Idea와 지혜로 여러가지 현안 문제들을 잘 헤쳐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 동창회는 어떤 사회단체보다도 30-40대 후배들과 80대 선배들이 서로 격의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창회가 가장 바람직한 동창회로 자리잡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륜이 많으신 선배님들의 지혜와 참여, 성원, 젊은 동문들의 열정과 패기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드리며, 후배들이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선배들이 뒤에서 후원하며 서로 협력하면 총동창회가 크게 도약할 것을 믿습니다. 희망찬 새해에 최용준 신임회장과 새 임원들이 놀라운 일들을 해 낼 것을 기대하며 그동안 성원과 후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오세정 총장은 축사에서 “COVID-19으로 남가주 동문 여러분들도 많은 불편과 긴장 속에 한 해를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두 슬기롭게 잘 이겨 나가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타국에서 동창회를 유지 발전 시키고 계신 동문 여러분께 총장으로서 또한 동문의 한사람으로서 자랑스럽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남가주 총동창회야말로 명실공히 세대를 초월한 화합과 우정의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동문들이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각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우리 모두의 자랑입니다. 남가주에는 40년대 학번인 선배님들부터 갓 대학을 졸업한 후배들까지 많은 동문들이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최대 규모의 지부가 남가주 총동창회일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큰 배움의 길,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많은 젊은 동문들이 미국을 찾을 것이고 먼저 자리 잡으신 선배들이 그들에게 큰 의지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신용남 미주동창회장이 뉴욕에서 보내 온 축사는 다음과 같다. 미주 동창회는 지난해 8월 팬데믹 중에도 전국 평의원 회의를 온, 오프라인을 통하여

1940년대 학번의 부모님 같은 선배님들로부터 2010년대의 자식같은 후배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에서 학연으로 맺어진 우리 동문 모두가 서로 잘 소통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남가주 동문들과 그 가족까지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모임들도 계속해서 유지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남가주 총동창회 모든 회원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모일 수 있는 동창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다음 최용준 신임회장의 단과대 회장단 소개, 그리고 신임회장단 발표와 인준으로 이어졌다. 2021년 임원진으로 회장: 최용준, 총무국장: 김용진(수의대 92), 재무국장: 지창열(문리대 83), 사업국장: 최경석(사대 80), 문화위원장: 김옥권(미대 76), 행사위원장: 모원균(공대 89), 미디어 위원장: 김중하(문리대 85), 차세대활성위원장: 이형준(농대 88), 대외협력위원장 김인중(농대 74) 등 32명이다.

다음 김용진(수의대 92) 신임 총무국장이 2021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4월17일 골프대회, 5월 미대 경매전, 6월 미주동창회 평의원회, 7월 여름음악축제, 9월 आयु, 10월 원로선배오찬, 12월 송년파티 등이다.

또한 남가주 총동창회 You-Tube 방송을 소개했다. 남가주 유튜브 방송제작은 동창회 소식의 창으로 동창회 소식을 전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로 세대를 초월하여 동문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간과 거리 등의 이유로 동창회 행사참여가 어려웠던 동문들도 간접적으로나마 동창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미주동창회 신용남 회장은 크게 격려하는 의미로 소정의 후원금을 지원했다.

젊은 회장단의 새출발을 축하하며 이날 행사는 마무리 되었다. <홍선례 문화국장>

### 종신이사 추대



## 종신이사님들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 미주동창회 -



김종률 (사대 51)

김종률 종신이사사는 사대 51학번으로 평생을 교육에 몸바친 교육자이다. 1974 Columbia University Teachers College NYC 교육학박사를 거쳐 1966 Columbia University, Teachers College NYC Professional Diploma, 1962 Columbia University, Teachers College NYC MA, 1961 Bank Street College of Education, NYC MS를 받았다. 다양한 사회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를 비롯한 한국의 교육에도 큰 공헌을 하였다. 1995년 평화통일 자문위원 (대한민국 정부 임명)으로 활동하였으며 1992 미 의회 태평양지구 소위원회 위원장 자문원, 1994 미 민주당 New York 지구 한인 연합회 고문, 2000 Hillary Clinton 상원 위원 후보 Keynote Speaker 로도 활동했다. 1986 편집위원장 “미국속의 한인사회”, 한국 민주화 촉진 New York 위원회 실행이사, 1989 통일민주당 총재 김영삼 자문위원, 1990 Parade 추진위원, 1993 평화통일 자문위원 (대한민국 정부 임명), 1994 미 민주당 New York 지구 한인 연합회고문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2010 한국정부 학도대 6.25 전쟁때 공헌을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윤종숙 (약대 66)

윤종숙 종신이사사는 약대 66학번으로 Univ. of Florida에서 약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도 현직에 종사 중이며 2001년 목사안수를 받아 목회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슬하에는 1남 1녀가 있다. 아들은 CFA(Chartered financial analyst)로 Financing계통에서 일하고 있고, 딸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신의석 (공대 53)

신의석 종신이사사는 1957년 서울대 공대를 졸업한 뒤 1959년 미국으로 건너와 대학원 공부를 마쳤다. 신 박사는 1961년 MSEE를 받았고 1966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전기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군과 USAF에서 10년간 연구개발한 후, 우주 산업에서 30년 이상의 경력을 쌓았다. 그는 GE(General Electric)에서 NASA의 Nimbus Satellite 프로그램의 Payload Integration 매니저로 시작하여 USAF, NASDA 및 KARI의 다양한 위성 개발 프로그램의 가이드, 항법 및 제어 프로젝트 매니저를 역임했다. 신 박사는 2000년 Lockheed Martin에서 퇴직하고 USAF SBIRS 프로그램 시스템 엔지니어링 매니저 직에서 2년간 사내 컨설턴트(supported by Scientific Brain Trust Program of Korean Government)로 자문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우주 프로그램의 independent consultant로 5년 더 일했다. 1986부터 1987년까지 필라델피아 지부 서울대 총동문회장을 지냈다.

# 조지아지부 장학금 수여식

김인구·이흥열 동문 자녀·손주에 각각 1천달러씩

서울대 동문회 조지아 지부 장학회에서 지난 2월 6일 2021년 장학금을 수여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김재호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수여식은 수상학생들의 부모님, 조부모님, 동문회 회장단, 장학회 심사위원들이 참석했고 수상자들의 소감과 미래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영광의 수상자는 Gretchen Kim(김지수): 부 - 김인구 동문(Lambert High School) David Lee(이재형): 조부-이흥열 동문(Peachtree Ridge High School)에 각각 1,000달러씩



전달되었다. 수여식에 참석한 동문들은 바 이러스에서 모두 안전해서 직접 대면할 수 없을 기다리며 서로의 건강을 기원했다. <기사 및 사진: 조지아지부 제공>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원고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외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aa.org 로 보내주시시오.



# ‘정치 양극화 현상과 원인’ 강연

## 미네소타 지부 김한나씨 초청 정기세미나



미네소타 서울대 동문회는 지난 2월2일 중을 통한 정기세미나 모임을 가졌다. 이날 세미나는 숙명여대를 졸업하고 미네소타대학 정치학과에 박사과정으로 재학 중인 김한나 학생(사진왼쪽)이 “정치 양극화 현상과 원인: 이념적 양극화인가, 정서적 양극화인가?” 라는 주제로 50여분간의 강의를 하였고 이어진 30여분간 질문과 답변 세션을 통한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2월 세미나 모임은 서울대 동문들과 김한나 박사과정 학생의 지인들로 이루어진 23명이 참가하였다

세미나는 “미국은 양극화 되었나?” 라는 미국 정치의 양극화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특히 양극화를 단순한 사회의 양극화라는 통 개념으로 단순화 시키지 않고 엘리트 사회의 양극화와 대중의 양극화로 나누고 정치 엘리트 사회의 양극화가 어떻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지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30여년전의 미국 의회의 양극화는 진보(민주당)와 보수(공화당)라는 현재의 양분화와 같은 구조를 공유하고 있었지만 당시의 정치적인 성향이 중간지점에 해당하는 정치인사들의 존재로 인해 정치 현안에 대한 타협점을 찾을 기회가 존재하였다. 이와는 대비되게 현재의 미국의회의 진보와 보수가 좀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달아 두 정치 성향 간의 간극이 더 커지고 이로 인해 더이상 오버랩 되는 중간지점이 존재하지 않아 정치적인 타협점을 찾기 힘든 구조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대중의 양극화의 결과는 정치인의 문제만이 아닌 실제 가족들 사이의 세대간의 문제와 가족들과 가족들의 만남인 혼인의 문제로 까지 확대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비교대상으로 삼은 영국사회보다 미국사회가 더 심한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극화를 일으키는 근간이 사



회적 자아 원리라는 이론이 소개되었다. 이는 양분된 그룹의 각각의 정체성이 정치적 공격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며 이러한 자아의 정체성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과 방어의 반복 속에 각 그룹에 속한 구성원들의 양극화가 더 극단으로 치달는다는 이론이다. 특히 양분된 각 그룹의 정체성을 측정하는데 감정도도계라는 개념이 적용된다는 점은 다시 한번 현대 정치의 양극화가 사회적 아젠다나 대의 명분이 아닌 감정의 문제로 흐르고 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현대 정치의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키고 자극적으로 만드는 요소로 언론의 정치화가 주목됐다.


특히 like-minded media(민주당 지지 그룹의 경우CNN이나 NBC같은 진보 매체, 공화당 지지 그룹의 경우 FOX와 같은 보수 매체)와 cross-cutting media(민주당 지지 그룹의 경우 FOX, 공화당 지지 그룹의 경우 CNN이나 NBC중 어느 미디어가 더 양극화를 심화 시키는지를 실험하는 방법이 소개되었다. 이러한 미디어의 영향과 더불어 경제적 요건이 양극화에 깊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도시와 시골 지역을 비교한 예를 들어 설명되었다.

최근 날카로운 대립이 계속되는 미국 정치 현실과 선거 후 지속적으로 발생한 불협화음을 고려할 때 상당히 민감한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미나는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진행되었고 이어진 질문과 답변시간에도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을 지양하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는 성숙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는 정치적 성향은 유전학이라는 우스개소리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절대 불변의 법칙이 존재하지만 결국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들어주는 것이 점예한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한 방편임을 모두에게 일깨워주는 시간이었다. <기사/사진: 미네소타지부 제공>

## LG전자 전 사장 백우현 박사 Digital HDTV 주제 SNU포럼 강연

**한인 온라인 무료상담**



1년이 넘어가는 Covid-19으로 힘든 시기에 CA에 위치한 Daybreak University (DBU) 부부가족상담센터(Daybreak CFCC)에서 한국과 미국 등 전세계에 계신 한인들에게 온라인 무료상담을 제공한다. (한정민 동문(농 87)이 상담센터 임상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다.) 주로 결혼생활과 이혼, 재혼 등 부부관계의 문제와 성문제 (sex therapy), 부모-자녀관계 등 가족관계 상담 및 가족치료, 아동과 청소년 상담, 중독문제, 각종 정신 신체적 증상 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심리치료, 부부상담과 가족치료, 집단상담과 심리검사를 실시하며, 또한 일반 상담교육과 상담전문가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웹사이트: [www.daybreak.edu/kor](http://www.daybreak.edu/kor)  
상담신청 바로가기: <http://www.daybreak.edu/kor/Couples-and-Family-Counseling-Center/clinical.html>

시애틀 SNU Forum이 지난 2월 13일 Zoom 미팅으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TV 개발에서 세계적인 선구자 역할을 한 백우현(전기공학) 동문이 디지털 고풍질TV(HDTV)와 안방극장(Home Theater) 설치를 주제로 강의했다. 백 박사는 MIT 졸업후 1990년대 Digital TV개발의 선두주자인 General Instrument에서 20여년간 근무하며 Executive VP로 있을 당시 Millennium을 즈음하여 LG 전자 President & CTO로 한국으로 초빙되어 15년을 재직했고, 그 후에 Qualcomm Technology에서 Senior VP로 최근에 은퇴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영화관에도 갈수없는 상황 이어서 가정에서 TV를 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보아오던 NTSC(National Television

System Committee) TV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있는 고풍질 DIGITAL HDTV로 변해간 역사를 간략히 review하고, TV나 Projector를 구입할때 LCD TV와 OLED TV의 차이점, 대형화면으로 마치 영화관에서 보는 듯한 PROJECTOR 화면에 대한 설명과 집에 HOME THEATER를 설치할 때의 고려사항등을 논의했다. 백우현 박사로부터 어떻게 가정용 극장(Home Theater)을 설치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가족들과 보다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Tel: 718-463-3131  
Fax: 718-463-6789  
[news@snuaa.org](http://news@snuaa.org)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 홍정일 (공대 59)**



홍정일(공대 59) 동문이 지난 1월 29일 오전 11시 30분에 타계했다. 홍정일 동문은 공대 동창회장을 역임했다. 2월 5일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에 위치한 Sunny Side Mortuary에서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고) 이재성 (공대 70)**



향년 70 세인 이재성 동문(공대70)은 여러해 지병으로 투병하다 2021년 2월5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1977년 서울대학교 공과 대학 졸업, 1978년 부인 이순신 씨와 결혼 미국으로 이주, 슬하에 1남2녀 등을 두고있다. 2021년 2월9일 사망하는 유가족, 교수, 및 동문들의 문상과위로 가운데 George Washington Memorial Park, Plymouth Meeting, PA 에 안장되었다.

# “지식·정보 나누며 세대간 소통과 화합”

## 활발한 학술세미나로 시니어세대부터 유학생까지 활발한 교류

### 지부 소개 미네소타



회장 차재호

**1. 미네소타 동창회의 간단한 소개**  
미네소타에 거주하는 한국인 사회에서 서울대 동문선배들께서 한인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활발한 활동과 주도적인 리더 역할을 하여 오셨다. 전성균 (의대 대학원 '60) 동문이 1969년 한인회 회장을, 송창원(문리 '53) 동문이 1973년에 그리고 김태환 (의대 '58) 동문이 1975년 한인회 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변우진(문문 '81) 동문이 2000~2001년에 한인회 회장을, 그리고 황효숙 (사대 '65) 동문이 2020년 부터 한인회 회장을 맡고 있다.  
미네소타 동문회가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94년에 권승림(공대 '52) 동문이 초대 회장을 역임했고 조형준(문리 '62) 동문이 초대 총무이사를 맡으면서 서울대 미네소타 지부의 동문회 활동이 정기적인 모임으로 발전이 되었다. 이후 2020년까지 모두 20분의 동문들께서 미네소타 지부 회장 임무를 맡아서 동문들간의 화합만 단합과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미네소타는 2021년 현재 53학번에서 94학번까지의 OM그룹에 58분의 동문들이, 95학번 이후의 YM 그룹에 모두 74명의 동문들이 있다. OM 그룹은 41년의 터울이 있으나, 원로선배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동문회 활동에 많은 참여로 미네소타 동문회 활동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 미네소타지부의 주요 연례 활동사항은**  
연 2~3회의 이사회 모임, 연 3회의 집행부 모임, 봄/가을 야외회, 체육대회 (골프, 볼링), 3개교 (서울대, 연대, 고대) 골프대회, 신입생 환영회, 월례 학술세미나, YM 그룹 모임 및 연말 총회 (장학금 증정 및 차기 회장단 선출) 등이 있다.

**3. 지역 동창회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동창회 활동중 타 동문회에 자랑하고 알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외부 연사를 초청하여 유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하였던 학술세미나를 2020년 9월부터 각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월 1회 실시하는 온라인 모임으로 확대하였다. 그동안 “펜데믹: 끝이



2007년 12월 연말총회때 미네소타 역대 동문회장들이 함께한 모습. 사진 왼쪽 부터 김권식 (공대 '61), 이진규(전 미주동창회 9대 회장), 고 권승림 (공대 '52), 권학주 (사대 '59) 주한수(수의대 '62), 남세현 (공대 '67), 신학철 (공대 '75)



고 권승림 (초대회장)

보이지 않는 싸움”, “Algebraic Combinatorics & its Applications” 등 다양한 강연들을 해왔다. 지난 2월에는 김한나 박사(숙명여대 '89)를 연사로 초빙하여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미국 정치권의 극명한 양극화와 원인에 대한 심층있는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학술세미나를 동문중심 행사에서 주변의 지인들과 관심있는 모든 분들께서 강연을 직접 하시고 또 함께 참석을 하실 수 있는 기회로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미네소타에서 대학의 교수로 재직중이신 동문들이 많이 있어 유학생 동문들 및 그 지인들에게 멘토 역할을 많이 해 주고있다. 미네소타 야외회는 모든 동문들이 가족과 함께 소풍을 가는 행사이다. 야외에서 바비큐 고기를 맛있게 준비한 반찬들과 함께 즐기며 동문들간의 정을 나누는 큰 행사다. 모교 방문단의 계절학기 수업이 지난 2년 동안 미네소타 주립대학 (University of Minnesota, U of M)에서 이루어져서 모교의 젊은 학생들과 미네소타에 거주하시거나 유학 중이신 동문들간의 많은 교류가 이루어졌다.

**4. 지난해 Covid-19로 인해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교류가 있었는데 활동을 소개해 준다**  
Covid-19 으로 인해 집행부 모임, 이사회 모임, YM Group 모임, 월례 학술세미나, 소그룹 모임 및 연말 총회들이 Zoom 을 통한 온라인 모임으로 진행이 되었다. 학술세미나는 1시간~1시간30분 실시되어, 2020년 9월에 U of M의 용정식 (농화학 '86) 교수가 펜

데믹에 대한 주제로 강연을 하기 시작하여 매달 1회 진행을 하고 있다. YM Group은 zoom을 이용한 저녁 식사를 시도 하였는데 미리 준비한 음식을 각자 자기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zoom으로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주고 받았다. 김권식 (공대 '61) 동문은 재미 과학자 기술자 협회 2020년도 기업인상을 수상했는데, 이소식을 유튜브로 모든 동문들과 공유했다. 김수진(기약 오보에 '07) 동문은 양상을 MUZEN 을 결성하여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였다. 미네소타 동문회의 Facebook 을 통한 공지 및 알림도 활용하고 있다.

**5. 젊은층과의 교류도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젊은층 유입을 위한 노력과 활동을 소개해 주신다면**  
유학 중인 학생 동문들 중에서 학생 간사를 2명 임용하여 젊은 학생들과 활발한 교류가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 임기는 2년으로, 두 명 중 한 명의 임기가 서로 교차하여 바뀌도록 하여 항상 경험이 있는 학생간사가 새로이 임용되는 학생간사와 함께 일을 하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유학생 동문들에게 많은 교류를 하고 있다. 매년 가을에는 신입생환영회 행사를 통해 유학 생활을 처음 실시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Network을 형성하고 교수로 재직 중인 연사님들을 섭외 하여 유학 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제에 대한 강연 등을 실시해 왔다.

또한 U of M 에 재직중인 동문 교수들이 멘토의 역할을 수행하여 유학생 들의 학업 및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들어주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왔다. 그리고 부족한 예산이지만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다. 유학생 중심으로 구성된 YM Group 모임을 지원하여 YM Group 구성원들이 서로 모여서 식사 및 담화를 할 수 있도록 예산에 활동 내역을 매년 계획하여 반영을 하고 있다. 매달 실시중인 학술세미나에 박사 과정에 재학중인 젊은 인력들이 자신들의 연구 결과 및 논문 등에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도록 추진을 하여 젊은층의 참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 전 미주 동창회에 하고싶은 말이나 미주 동창회에 대한 안건이 있다면**  
각 지역별 동창회가 서로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회장 및 임원단 교류 모임과 또는 지역별 학술세미나 등에 연사나 주제 안건 등을 공유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 되었으면 한다. 모교와의 협의가 미주 동창회 차원으로 전체적인 큰 윤곽에서 모교와 협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마련 되었으면 한다. 가령, 서울대 총장님이나 서울대에서 재직 중이신 교수님들의 미주방문 또는 미주 동창회에서 모교를 방문하는 기회 등이 미주 동창회 전체에서 협의 될 수 있었으면 한다.

Pandemic 상황에 따른 스트레스 등을 이겨낼 수 있는 강좌나 조연 또는 지원사항 등이 총동문회에서 협의가 되었으면 한다.



▲야유회

▲학술세미나





곽상희  
(문리 52·올림포에트리 시인)

■시인약력: <현대 문학>등단  
시집(사막에서 온 푸른 염서·영한) 외 9권/ 수필집 3권/  
장편소설 '바람의 얼굴' 외 3권  
박남수시인 대상/ 영국국제여류시인상/ UPLI Member  
창작클리닉 운영/ 출판사(BOTP)대표

### 드림러들의 줄기잎

담장을 타고 오르는 줄기잎들이  
파랏파랏 다투듯 사랑을 하다가  
즐겁고 즐기치게 꿈을 꾸다가,  
어제까지 마음 놓고 꿈길을 가다가

속절없는 바람, 불어오자  
뿌리 채 휘청거리네  
허공이 그의 앞을 탁, 가로막아  
더 이상 오를 수 없네

그러나, 즐기는 온몸 파르르 떨며 꿈의 허리춤 재워  
다시 꿈을 추스른다,  
불가능과 절망사이 푸른 하늘에 희망을 걸고  
몸서리치도록 파란 줄기 희망 쪽에 놓아두고  
익어가는 오랜 구호 하나,  
담장을 돌아 돌아, 힘차고 애절하게 휘돌아  
아름다운 황토 길, 아리랑

춤추고 있다.

### Dreamer Leaves

The stem leaves on the fence  
loving green leaves here and there, so many  
having a pleasant and constantly dream.  
When the helpless, cruel wind blows,  
it staggers with the roots.

But the stem is trembling all over the body,  
still dreaming, the middle dancing.

Yes, dreaming again, dreaming again,  
putting the blue stalk on the hope side  
between impossible and despair.

Then, turning around the fence,

Swing strongly and heartily,  
Beautiful Loess Road, Arirang

\*Arirang : Korean folk song

### 그늘의 말

손님처럼 빛 한 점이 문틈으로 들어와  
하얀동그라미 치네  
세상에는 어둠이 그만큼 사라지고  
빛은 또 그만큼 생(生)의 향기를 뿜어내는지

향기를 흥흥거리며 일어서는  
사방의 물체들, 나무로 된 부엌 상(床)은  
그가 씨앗과 어린 나무이던 때,  
또 사무치도록 아름다운 숲을, 별이 총총히 내려오던  
처음 그 밤의 기억도 함께

그러나 빛이 말하고 싶은 것은  
정작 빛이 움푹 들어간 곳의 그늘에 있네

애초에 빛은 어둠의 짙긴 돌출부이며  
피로 태어난 그림자가 부른 꽃의 눈뜸이며  
봄비 내린 새벽 바로 해 뜨기 전  
바람 한 솔기에 온몸이 찢려  
오호, 극난(極難)하여 눈뜨는  
꽃의 방자한 몸짓!

어둠의 설렘이  
요요하게 눈을 흘기고

한세상 온통 달라질 수 있다고.

### The Shadow

A light like a guest enters the door  
circling  
a white circle.  
the darkness disappears,  
The light  
emits  
the fragrance of life.  
Standing  
with objects on all sides  
and wooden kitchen floor.

It remembers the first night  
when he was a seed  
and a young tree  
it was also a beautiful forest

But, the light is  
in the shadow of the corner.  
Yes, in the first place, light is  
a tall protrusion of darkness

It is the eye of the flower:  
Before dawn right after the spring rain.  
Your whole body is stabbed in a windy seam.  
Ooh, the extreme gesture of flowers!



이희만  
(간호 70·편집고문)

■시인약력: <시대 문학> 등단  
한국 여성 문학인 회원 / 미동부문협 초대 사무총장, 부회장 역임  
CCC Poetry Member/ Literary Art Medal 수상  
UPLI Member/ 25년 한국어 교육/ 교장 역임  
시집 <물의 은유>외, <뉴욕 포에트리> 외 편저 다수

### 우선 멈춤, 앞에서

모든 바퀴가 달리다가 멈춰섰다  
너도 나도 걷다가 우선 정지에 섰다  
하늘 날다가 멈춰선 비행기를 본다  
드넓은 청색 바다 누비다 정박한 선박들 하얗게 줄지어 서 있다  
우선 멈춤, 그래도 살아있는 이유가 가벼워진 않는다  
우린 늘 불안한 이유로 등근 자전거 바퀴를 계속 밟진 않았을까  
우린 정작 갈 곳 몰라 길 따라 계속 앞만 보며 전력 질주하지 않았을까  
혹독한 일년, 우선 멈춤 앞에 서니  
얽혀 있던 인연이 모든 사물이  
서서히 제 색깔 드러내는 듯 하다

### First Stop, Ahead

All the wheels halted  
You and I both were walking but are now stopped at a standstill  
I look toward the sky where a plane stands still  
The vast blue sea is lined with white ships with their anchors moored  
First stop, but the reason for being alive does not get lighter  
Was it always anxiety that pushed us to press on the pedals of round bike wheels?  
What kept us looking ahead and sprinting along the road without a destination?  
A harsh year, but first stop ahead  
The relationships that were entangled  
All things begin to reveal their true colors

### 봄 풍경

벗속까지 하얗게 비운 블루 제이  
푸른 봄 하늘 높이 날아 오른다

텅 비운 가슴으로 바이올린은  
가느다란 금속선 넷으로  
우주 소리 아름답게 고르고 켜는데

울창하게 모여든 숲 언저리  
해안선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마을들  
물결 따라 세월따라 흐르고  
보이지 않는 적과 투쟁 기록  
인류는, 비장하게 한 줄 적어넣는다

이제야 보이는 듯 들리는 듯하구나  
한평생 차곡차곡 쌓아온 집착이  
눈 씻고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던 세상이

생의 마지막 장 이르러서야  
더 이상 뺄 것 더할 것 없는 정점 가까이에 이르러서야  
환히 햇살에 드러나는가  
깎아지른 에레베스트 산 정복 앞두고  
남은 짐 하나 툭, 털어내고야 마는 등산가

멀리, 새 한마리 허공차고 수직으로 솟아오른다

### Spring Landscape

The Blue Jay empties down to its bones  
Soaring high in the blue spring sky

A hollow violin with its four thin metal strings  
resound the music of the universe

At the edge of a densely gathered forest  
Villages that gather and scatter along the coastline  
Following along the waves of the ocean and the tides time  
Records of struggles with invisible enemies  
Humanity writes a tragic verse

Only now, I seem to see and hear  
The obsession that I have accumulated in my life  
The world that was once invisible even though I cleared my eyes

Is it not until the last pages of my life  
When there remains nothing left to be added or taken away  
That it's revealed by the bright sunshine?  
Ahead of the conquest of the sheer Mt. Everest  
A climber who drops off the last burden

Far away, a bird soars vertically in the air





김의구 (철학 80)

/ 기 고 /

### 노블레스오블리주

홍콩배우 주윤발은 2년 전쯤 전 재산을 자선단체 등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시 그의 재산은 56억 홍콩달러(7,800억 원)로 추정됩니다. 그는 평소에도 싱가포르 거상 가문 출신인부인이 설립한 기부단체를 통해 사회 환원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기부가 오랜 전통이자 널리 공유되는 문화입니다. 카네기는 2,500개 도서관을 건립하고 평화 증진 등을 위해 95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록펠러 집안의 기부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빌 게이츠 MS 회장은 지구촌 보건 향상과 극빈자 구호 등을 위해 358억 달러를 쾌척해

기부액 순위 역대 1위입니다. 워런 버핏과 조지 소로스 같은 투자 구루의 기부액도 340억 달러와 61억 달러에 이릅니다. 3억 달러로 추산되는 오프라 윈프리, 엘튼 존 같은 연예인의 기부도 활발합니다. 이들의 선행은 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계층 사이 위화감을 줄여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 사회 그리고 동문 중에도 미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모교에 혁신발전기금 10억원을 기부한 이준용 대림그룹 명예회장은 큰 재재가 날 때마다 거액을 내놓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수영 광원산업 회장, 이종환 삼영화학

그룹 회장, 원로배우 신영균 선배 등도 있습니다. 관악회에 따르면 동문들의 동창회 기부누계는 8,000여 명, 486억원에 이릅니다. 2015년시작된 풀뿌리장학기금엔 340명이 매월 소액을정해 기부, 총액이 10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온 국민이 유례없이 고단한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영업이 도탄의 위기에빠졌고 실업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선단체들은 목표치를 낮춰 잡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더 힘든 계절입니다. 스산한 세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생각해 봅시다. 마이클 샌델의최근 저

서에서 개인의 성취는 노력만이 아니라태생적 운과 사회적 환경이 결합해 얻어진다 고 지적했습니다. 능력주의에 매몰되면 승자에게는 오만, 패자에게는 좌절감을 초래해 유대를 상실하게 된다고 봅니다.

자기가용이 없고 매달 용돈이 11만원에 불과할정도로 검소한 생활을 하는 주윤발은 기부 이유에 대해 “그 돈은 내 것이 아니고 잠시 보관하고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곧은 생각, 정감한 마음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거액이 아니어도, 굳이 동문회가 아니어도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 구호단체도 문을 활짝 열어놓았으니 성금 걸음만 내디디면 될 터입니다.

/ 인터뷰 /

### 천년 이어온 노래 정가, 네이버 실검 1위 “소원 성취했어요”

<正歌>

장명서 동문 정가발표회 QR코드



장명서 (국악13)

내내 흘깃 보던 태블릿을 기자의 앞으로 내밀며 물었다. 유튜브에 업로드돼 있는 '여창가객 장명서 정가발표회1 - 달의 조각 영상이었다. 중이신문에 인터넷 주소를 그대로 쓰는 건 의미가 없으니, 온라인 기사에 링크를 삽입하 겠다고 답하자 아쉬운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연예인이 되려는 것도, 트로트 가수로 전향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저의 음악 세계를 넓히기 위한 도전이자, 정가(正歌)를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소하던 그의 말이두말할 나위 없이 진심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MBC 인기 예능 프로그램 '트로트의 민족'에 출연해 최종 6위의 성적을 올리 며 이름을 떨친 장명서 동문. 지난해 11 월 온라인으로 개최된 본회 홈커밍데이에선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아름다운 나라'를 부르기도 했다.

"정가는 '아정(雅正)한 노래'라는 뜻으로, 가곡가사시조 등 심신 수양을위해 지어진 선비의 노래입니다. 민간성악곡의 총칭인 속가속요와 구분 짓는 동시에, 일제 말 서구의 노래가 물밀듯이 밀려올 때 이에 맞서 우리 음악을 지키고자 불어친 명칭이죠. 특히 가곡은 깊이 있는 노랫말과 완성도 높은 음악적 구조 덕분에 유네스

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정가는 기원을 따지면 고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천년을 이어온 노래다. 그러나 대중의 관심 밖으로 멀어지면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다.

내가 사랑하는 노래가 상아탑에 갇혀, 전공자가 아니면 듣지도 부르지도 않는 음악이 되어가는 것이 마음 아팠다. '서울대식이나 나와서 뭐 하는 거냐', '국악 학도의 수처다', '그걸 노래라고 부르냐' 등 일부 선배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곳곳이 방송에 출연해 트로트와 국악을 융합, 해금, 대금, 사물놀이 등을선보인 이유다.

"인기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소원을 이루긴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 정가가 네이버 실시간검색어 1위를 차지했거든요. 방송은 물론 여러 신문, 잡지에도 소개됐고요. 국악을 알리는 데 일조할 수 없다면, 방송에 나가지 않았을겁니다. 트로트 가수분들께 실례가 될수 있겠지만, 저의 출연동기는 너무 분명했어요. 트로트 붐에 편승해 정가를 홍보하고 싶었죠. 그러나 이내 가법계를 음악이 아닌란 것을 깨달았 습니다. 현란한 강약조절과 치고 빠지는 밀당을 특징으로 하는 트로트는 청중의 감정이 입이 쉽고 강렬한 음악이었어요. 제가 잘못 불려서 폐를 끼치진 않을까 노심조사했습니다."

장 동문은 2017년 모교 졸업 후 국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음악적 실험을 거듭해 왔다. 창작 국악그룹 '동화'와 창작 가악

를 '연노리'의 멤버로 활약했고, 2015년 제31회 '동아국악콩쿠르'에서 정가 부문 금상, 2018년 박한결(국악15일) 재학생과 함께 출전한 '21C 한국음악프로젝트'에서 은상을 받았다.

2017년부터 The-K호텔에 호텔리어로 근무하면서 음악 활동을 병행했다. 강준식(불문가출-본회 상임부회장) 대표이사의 전폭적인 신임을 등에 업고 호텔의 갈라쇼, 디너쇼 무대에 섰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궁지에 몰렸다. 방송 출연은 장동문이 찾은돌파구이기도 했다.

"첫 방송 출연은 MBC 예능 프로그램 '오! 나의 파트' 나'였습니 다. 유명 가수가 무명의 도전자와 함께 하모니를 완성하는 형식의 음악 프로그램이었죠. tvN '소사이어티 게임'에 출연했고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이해성(경영13-16) 동문이 다리를 놔줬어요. 학교축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어쿠스틱 캠프'에서 'Famous Fame'이란 팀명으로 같이 노래했었죠."

재학시절 추억을 묻자, 장 동문은 지도교수를 따라 해외에서 우리 국악을 선보였던 경험을 꼽았다. 국내에선 따분해하는 청중이 적지 않은 데 비해 외국에선 눈을 반짝이며 몰입한다고. 그 눈빛에서 국악의 가능성을 확신, 평생 노래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동문 여러분들께서도 저를 그렇게 봐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우리 국악을 알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장명서' 검색해 주세요"



김해암 (의대 52)

/ 삶과 생각 /

### 나의 인생과 이상

수련을 거뜬히 해내고 정신분석 수련에 들어 갔다. 콜롬비아 대학 정신분석의 원로들의 지도와 슈퍼비전을 받고 4년만에 졸업을 하고 대학 임상 교수로 횡 문화정신 의학을 20여년 강의를 했다. 정신분석 과정에서 자기분석을 2번 받았는데 나의 결혼 문제를 다루고, 나 자신의 정체성의 문제와 문화 차이에서 오는 감정과 인식의 차이를 다루게 군에 봉사했다.

1953년에 서울 연건동 캠퍼스에 이전하고 정식으로 전시의 대학교육을 경험하였다. 나의 부산 고모 댁에는 당시 영국계 성공회 신부님이 살고 계셨다. 고모가 평야에서 전도 부인으로 모시든 심부 님이 일제에 의해 강제 송환 되었다가 해방 후 한국에 돌아와 주교로 승진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 영어 회화를 할 기회가 있었다. 환도 후에는 많은 미국 선교사들을 맞 날 수 있었고, 서울대학교 독 학생회장을 하면서 연세대, 이화여대의 대표들과 경쟁하던 기억이 새롭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혜택을 부여 하느냐를 간단히 설명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생과 인간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은, 마치 예술이나 과학에 대한 관심을 어려서 부터 터득하는 요령을 배워야 하듯이 철학적인 생각도 어려서부터 가져야 한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에게 병이나, 죽음, 이혼 등이 정신적인 부담 내지는 타격을 가져 온다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보호 하려 하는데, 그렇게 하기 보다는 부모가 아이들

는 결혼 후 곧 자진하여 한국말을 개인 지도로 배운 것이, 이민 온 시부모와 가족을 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나에게도 처의 가족과 친척을 기꺼이 맞 나는데 익숙해 지고 내 가족으로 대하고 접하는데서 동등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안다.

그러면 직장에서도 대인 관계에서 정체성을 어떻게 구현 되어야하나 보면 대개는 무의식 적인 상하의 관계, 아니면 Dominant and Submissive 한 길을 터 놓거나, 자기 자신이 서로 동등하지 못하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인정하고 대하는데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남녀 관계나 부부 관계에 있어 무의식으로는 굴종 하면서 의식으로는 반항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와 비슷하다는 말이다.



나의 가족과 함께

에서 철학과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문화 철학을 정립해 왔다.

나도 어려서는 철학을 어려운 학문으로 알고 멀리했다. 알고 보니 철학이란 인간사를 다루는 학문으로 고대에는 철학에서 종교, 예술 그리고 과학 까지도 비롯되었고 철학이 모든 인간사와 그 지혜를 다루었다. 왜냐하면 희랍의 철학이 한국의 철학과 같은 면서도 달라야 하고 다른 것은 두 고장의 인간사가 다르기 때문이다. 인간이 왜 태어나며, 무엇을 위하여 살며 또 인생은 어디로 가며 또 가야하나, 등의 문제를 다루는게 철학이라면, 쉽게 철학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사는 지적 물적 환경인 문화를 통하여 배우고 이해 하는 것이 가장 쉽고 정확 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나의 경우, 백인여자와 결혼하고 자녀 셋 다 박사 학위를 하다 보니 다양한 문화성을 가진 가정 이 되었다. 가정 생활을 원만히 하려면 감성과 지성을 통솔하는 집단에 대한 지식과 가족의 역동적인 이해와 인식이 필요 하게 되므로 문화 철학의 지식이 필수가 되었다. 이렇게 나는 정신치료를 현대적인 정신분석에 의거한 사회과학적 인식과 뇌 과학, Neuroscience을 바탕으로 삼는 문화 철학적 정신치료를 발전시켜오고 있다.

과 함께 인생 철학을 경험하는 것이, 감추거나 비밀로 해 두는 것 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옳은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 부모들은 감추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어린이들도 애도하거나, 기념하는 행위를 부모와 같이 함이 인생을 배우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성숙도를 당겨 준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정체성의 확립 내지는 기본적인 자제를 이민자들이 어떻게 키워가야 하는가를 살펴보면 2가지 해결책이 있다.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온 문화성이 우월하고 특수하다는 자부심으로 가지게 하여 풀이 하는 방법과, 이민간 사회에 뛰어들어 빨리 적응하고 동화되는 것들이다. 한 예로 한국에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이민 가거나, 예술인이나 과학자가 우대를 받고 이민자가 되는 경우 언어와 풍습에 적응이 빠르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정체성의 문제는 이민 풍토에의 동화나 적응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아 의식과 행복 감을 쟁취하고 자기의 이상을 객지나 어려운 환경에서 차별대우를 극복 하 가면서 성공을 이루어 가는 방법이다.

나의 경우를 보면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고, 환경과 문화를 알고 익히는 과정이 좀 쉽게 이루어 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나의 처

확실시 미국사회는 백인들을 우대하고 흑인 푸대접 내지는 학대가 자연스러운 만큼 형성 되어 왔다는 사실을 나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여러 친척들을 찾아 보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다. 우대를 받지 못하는 중산계급 백인들은 동해안 지역에서 중서부로 이전하거나 은퇴해서 플로리다로 간다.

흑인들은 보통 백인편에 들지, 동양인이나 유색인종의 편을 드는 것은, 같은 미 대륙 태생이라는 동포애도 있지만 덕을 보려면 백인 편에 가담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놀라운 것은 미대륙 개척자들이 300년 동안 영국 식민지 신세를 뒤로 했듯이 흑인들도 수백 년을 참아온 것을 보면 인간에게 노예 근성은 언제나 어디서나 있어 왔다는 사실이고, 미국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탄생을 보였고 250년 동안 자라났다는 것이 미국 같은 이민자들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면, 유지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우리 모두가 공유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앞으로는 인권의 동등함을 주장하는 것이 강력하게 정치적으로 반영되고 팬데믹으로 인간 의식이 날카로워 지면서 세계는 좀 더 평등한 고장으로 변화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문화 철학의 전망이다.

세계 어디를 여행하거나 나는 백인 대접을 받는 것은 처 때문인 것을 한 참 후에야 깨달았다. 결국 이런 모든 인생의 법도가 무수한 경험으로 만 남지 않고 지식으로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배우게 되고 인생 철학이 수많은 젊은 소크라테스의 탄생으로 하여금, 세계평화와 평등한 이상향적 사회로 발전 하리라는 희망을 가져보자.

서울대학인으로 어떤 일을 잘 하며, 이민 사회에 공헌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on the line 로 활발이 논의 되어야 할 문화 철학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나는 인생을 동료들과 함께 미국사회를 이끌어가는 일꾼이 되기를 희망 함은 나 만이 아닐 것이다.





이용락 (공대 48)

2017년도에 나의 첫 유학지인 Glasgow(Scotland)를 미수 생일 기념으로 세 아들과 함께 60년 만에 돌아 보았다.

나는 2013년부터, 이루고 싶은 소망이 몇 가지 있었다(Bucket list). 그중 하나가 나의 기계공학도로서의 삶의 궤적에 전개된 첫 행운이었던 유학지를 방문하는 것이었다. Glasgow에 소재한 Royal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현 Strathclyde University) 대학 원을 돌아보고 이방인 유학생을 가족처럼 대해주던 하숙집을 돌아보는 것이었다. 이 유학은 그 당시 우리 경제사정으로는 자비 유학은 꿈꾸기 어려웠던 때, 마침 1년간 (1957-1958) British Council Scholarship으로 유학한 곳이다. 모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를 동족상잔의 한국전쟁 통해 재학 중 군복무를 마치고 졸업한 후 부산에서 대한조선 공사에 기수로 일하다 부산 수산대학교에서 선박기관학과 기계설계학과의 강사를 겸하였다. 매일 모두가 생계를 위한 생업을 찾아 헤매던 때에 한국전 참전군의 일원이었던 영국이 주는 장학금이라 더욱 기억에 남는다.

처음엔 아내와 둘이서 하는 여행 계획을 세웠으나 몇가지 문제가 예상되었다. 무엇보다 근 60년만에 방문하는 이 나라는 좌측통행을 하는 곳이라, 우리 둘만 갔다가는 Taxi를 타고 공항에서부터 모교만 갔다 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더욱이 당시의 하숙집인 Campbell 가를 방문하여, 그 당시 중학생이었던 George Campbell Jr.를 찾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내 아들 3형제에게 "아들 3형제와 나의 4인조 스코틀랜드 여행"을 제안했다.

처음에는 영국 전체의 여행을 생각했으나, 각자 가정이 있고, 일에 바쁜 아들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스코틀랜드 여행을 1주일로 단축시켰다 (2017년 1월 22일부터 28일까지). 마침 그 해가 나의 미수(米壽)의 해라 60년만에 다시 찾는 모교 그리고 내가 묵었던 정든 하숙집 Campbell 맥을 방문하는 꿈을 그리며, 이날을 기다렸다. 출발 전날 Seattle에 살고 있는 맏아들 Chris, Evanston에 살고 있는 둘째 아들 Ed, 그리고 San Diego에 살고 있는 막내 아들 Rich의 3형제는 서로 연락하여 Chris와 Rich는 출발 하루 전 시카고에 와서, Ed 집에서 유숙한 다음날 나를 데리러 왔다. 나는 3형제의 계획에 따라 가고 있었기에 아무 편안히 집을 떠날 수 있었다. O'Hare 공항에 도착하자 바로 UAL의 Business lounge로 갔다. 이는 아들 3형제가, 미리 나를 집에서 다시 집으로 올때까지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Business 왕복 항공권뿐만 아니라 모든 경비를 분담하기로 오래전에 세운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아들 3형제와 함께 시카고를 출발 Newark International Airport에서 갈아타고 Glasgow에 가게 되어 있었으나, 우리 항공기가 N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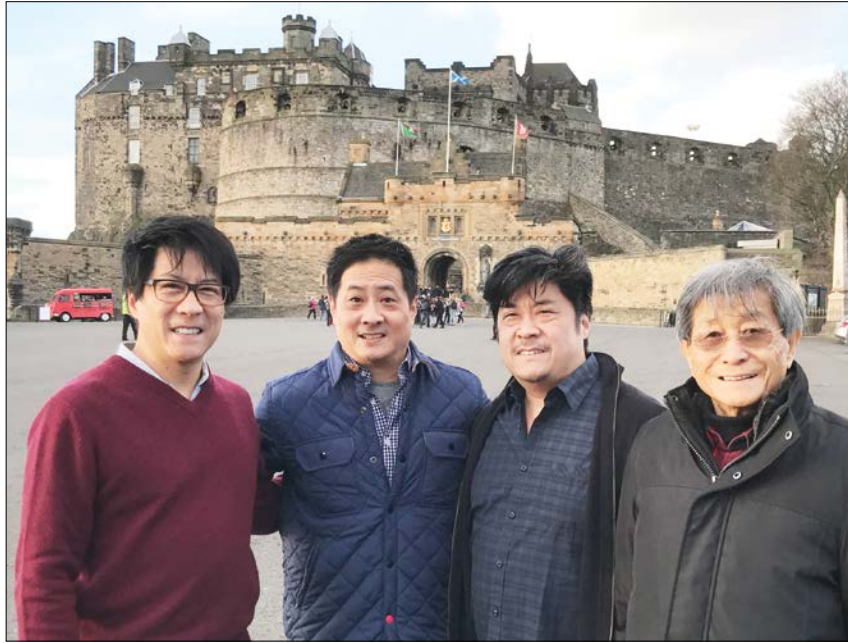
ark에 몇 시간 연착한 탓에 Newark에서 하루를 지체해야만 했다. 그래서 아들 셋과 의논 끝에, 이 기회에 Manhattan을 둘러 보기로 했다. 2001년 9월 11일 New York의 Twin-Building 에 al-Qaeda 폭력배들이 음모하여, 이들이 American Airline의 항공기를 납치하여 조종하여, 동승한 승객과 Twin-Building에 충돌한 세기의 비극인 9.11테러 사건의 희생자 1977명을 추모하는 Nightfall 9.11 기념 박물관, 그리고 새로 건축된 One World Trade Observatory까지 관람하는 뜻있는 시간을 가졌다. 만일 항공기가 Newark에 예정했던 대로 도착했으면, 이 귀중한 경험을 못했을 것이라 생각하니 성령님의 인도로 이루어진 나의 이 작은 소망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Glasgow(Paisley-Abbotsinch)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고, 대여한 자동차로 시내로 들어갔다. 제일 먼저 운전한 딸 아들 Chris는 옛날에 다니던 직장의 구라파 이사장으로 London교외에서 3년간 근무한 바 있고, 둘째 아들 Ed도 London의 Culinary school internship을 마치는 동안, 영국에서 산 경험으로 영국에서 운전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다.

후에 보니 막내 아들 Rich도 아무 문제없이 운전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이 믿음직한 세 운전 기사가 있었기에 나는 시종 뒷자리 오른쪽에 앉아 옛 추억을 회상하며 여행을 계속했다.

#### ■ George Campbell Jr. 를 찾아서

Glasgow의 숙소로 도착 후, 우리는 옛 하숙집 Campbell 맥을 찾아 나섰다. Mr. & Mrs. Campbell은 이미 작고했지만 4남매 중 외아들인 George Campbell Jr.는 당시 중학생이었으나 지금은 70대 중반인 노인일 것으로 짐작했다. 영국은 당시 가족을 대대로 물려가며 사는 것은 보았던 터라, 그가 아직 그 집에 살고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졌다. 그 옛날 1년간 머무는 동안 매일 모든 가족과 아침, 저녁 식사를 큰 식탁에 앉아 함께 하며, 한 식구처럼 살던 그 날을 회상하며 그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내가 기억하는 주소는 "17 Kelvin"이었으나, 아들들의 조사에 의하면 Kelvin으로 시작되는 길은 여러 곳에 있었다. 여하간 우리는 Kelvin으로 시작되는 여러 곳을 다녔다. 드디어 어떤 집을 찾았다. 즉 앞에 흐르는 개천이 있었고, 개천 양측은 나무로 무성했다. 그 집 뒤에는 바로 깎아지른 언덕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때와 판이하게 다른 점은, 집 왼쪽으로 5번 째의 집에서 길을 걸어갔고, 바로 거기에 개천을 건너는 다리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었고, 계속해서 언덕 아래로 길과 주택이 있었다. 그래서 개천을 따라 좀더 가보니 큰 다리가 있었다. 이 큰 다리는 예전에도 있던 다리였으나 그 당시에는 거의 기본 적이 없었다. 당시 나는 학교에서 하숙집으로 돌아올 때는 지하



Edinburgh Castle에서 세 아들과 함께



Aberfour Hotel에서

철역에서 나와, 북쪽으로 좀 걸어야만 작은 다리가 있었고, 그 다리를 건너 막다른 길에서 바로 왼쪽으로 돌면 5섯번째의 집이 오른쪽에 있었다. 그뿐 아니라, 다리를 건너 우측으로는 가족은 없어졌으며 길도 없었다. 따라서 아직도 오리무중 상태로 스코틀랜드 여행을 마치고 돌아 오는 길에 다시 찾기를 계속하기로 했다.

#### ■ 대망의 Campus 방문

그 다음 날 24일엔 대망의 모교를 찾았다. 1957년 그 옛날에는 교사 정문 앞길 건너편에는 큰 광장이 있었고 중앙에 분수도 있었다. 2017년 60년만에 돌아오니, 그 넓은 땅에는 많은 다른 건물들이 새로 건설되어 있었다. 현관으로 들어 서자 옛날의 구조를 보며 감개 무량했다. 이 건물 안을 두루 다니면서 옛날 기계공학과에 속한 강의실 및 연구실 협실 도서관등을 찾아 보았으나 도무지 찾을 수 없었다. 그러는 동안 옛 건물 뒷 쪽으로 옛 건물과 연결되는 디코 자의 신축된 큰 Campus를 발견했으니, 내가 찾는 여러 부처를 찾을 수 없

는 이유도 알았다. 밖에 나와 보니 옛 건물의 오른쪽에 있는 길 건너편에 신축건물이 있었으며 이것은 Student Services Building이었다. 우리는 이곳에 가서 "만 60년만에 모교를 다시 찾아왔다"고 통성명을 하고 "나의 당시의 하숙집 주소를 알고자한다"고 한 즉, 그 옛날의 자료는 Micro-film에 보관되어 있으며, 이 자료를 얻으려면 몇일을 요한다고 했다. PC가 존재하지 않은 당시의 자료가 Digitize 되어 있지 않음은 당연한 일로 이해가 되나, 매우 아쉬웠다. 우리는 다음 행선지인 Edinburgh로 떠나게 되었는데 큰 광장이 있었고 중앙에 분수도 있었다. 2017년 60년만에 돌아오니, 그 넓은 땅에는 많은 다른 건물들이 새로 건설되어 있었다. 현관으로 들어 서자 옛날의 구조를 보며 감개 무량했다. 이 건물 안을 두루 다니면서 옛날 기계공학과에 속한 강의실 및 연구실 협실 도서관등을 찾아 보았으나 도무지 찾을 수 없었다.

#### ■ Scotland 일주 여행

옛 Scotland 왕국의 수도였던 Edinburgh에서 늦게 도착하여 유숙한 곳은 University of Edinburgh부근의 한 호텔이었다. 여기는 내가 60년 전에, 이곳에 유학중인 한국학생을 만나기 위하여 Glasgow에서 가 본 이래

두번째의 방문이었다. 그 다음 날 오전은 이 대학의 Campus를 돌아보고 Edinburgh Castle을 구경하였으며, 오후부터는 Dover 해협을 따라 북상했다. 북상하면서 곳곳에 있는 "Carry-out" 같은 간이 식당이 있었으며, "Fish & Chip"같은 단순한 메뉴만 있었다. 여기의 Fish는 명태/동태(haddock). 동태는 옛날에는 한국의 동해에도 풍성하게 잡히던 어류인데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이 어류들은 다른 추운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북쪽인 북위 45도 정도의 Scotland 해안에는 이 어류가 풍성함을 알았다. 그러나 60년 전에와 식료품 상점에 가면 싱싱한 동태가 있었고, 한 때 자취생활을 할 때 동태국을 끓여 먹던 옛 추억에도 잠길 수 있었다.

우리는 해변가를 따라 북상하여 오후 늦게 Craigellachie 마을에 도착했다. 저녁식사에 Dover 해협에서 딴 매우 큰 굴을 담은 요리를 먹은 후, 유숙할 호텔 lounge의 fire place 앞에서 우리 부자 4사람은 둘러 앉아 Scotch tasting을 즐겼다. 과연 Scotch whisky의 원조답게 GlenDornoch, Glenrohes, Macallan, 등 약 20종류의 위스키를 작은 잔에 담아 음미했다. 아들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나에게서는 거의 같은 맛이었으나 60년만에

이 나라에 다시와서 세 아들과 함께하는 기쁨은 형언하기 어려웠다. 그 다음 날에는 Craigellachie 부근의 Macallan Scotch의 제조회사를 방문했다. Whisky 제조의 복잡한 여러 과정의 설명을 들으니, 그곳에서 생산되는 곡물, 그 지방의 물의 독특한 품질부터 시작하여, 그곳의 기후 등 여러가지 변수가 독특한 Brand의 Scotch가 탄생함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 이 때쯤, Rich가 Strathclyde University 에서 e-mail 을 받았으며 옛날 나의 하숙집 주소를 얻었다. 우리 일행은 계속하여 북상하여 북해(North Sea)에 이르렀다. 여름에는 관광객들이 모이는 곳 이어서, 여러 시설을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여러 채 있었으나, 1월 말인 그 때에는 사람들의 수는 매우 적었다.

이제 Glasgow로 돌아가기 위하여 동쪽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도중에 있는 Loch Lomond를 비롯한 여러 호수(Loch)의 풍경과 스코틀랜드 국화(國花) Heather 로 덮인 산들을 감상하며 Glasgow에 온 것은 오후 3시쯤 되었다.

■ George Campbell Jr. 를 만나지 못한 실망 우리는 바로 Campbell 맥을 찾았다. 놀랍게도 처음 Glasgow에 도착하여 찾았던 바로 그 집이었다. 그러나 그 집 현관문을 열고 나



Kevin House, Glasgow에서

온 사람에게, 이 집이 George Campbell Jr. 맥인가를 물었더니 "아니"라고 했다. 그 때의 실망스럽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 그 집 주인에게 이 집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를 물었더니, 약 30년 되었다고 했다. 즉 Campbell

일가는 오래 전에 이사를 간 것을 확인하고, 우리 아들들은 Glasgow 시에 있는 Campbell이라는 이름의 data base에 따라 탐색했으나 다 George Campbell Jr. 하고는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매우 실망스러웠지만, 지난 60년 변한 하숙집 부근의 변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즉 하숙집 부근의 다리는 없어지고, 이와 연결된 남쪽 도로는 주택지로 채워졌고, 하숙집 왼쪽으로 길과 주택지가 개천을 따라 신설되었다. 이런 결론에 따르면, 옛 하숙집 부근의 다리가 사라질 이유도 추측할 수 있었다. 즉 개천에 따라 수 많은 다리가 있었던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걸어서 지하철을 뚫지만, 자가용 승용차가 많아짐에 따라, 다리의 수가 줄어들어도 모두 큰 다리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이었다. 또한 옛날에 부근의 큰 다리에 거의 가본 일이 없었음도 이해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개천을 따라 길도 없었고 주택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생각을, 나머지 여행중에도 몇 번이나 되풀이하면서 확인해보았다.

나는 이 여행이 60년의 세월 속에 강산도 변하고 사람도 닮았으나 그 시절의 삶을 돌아보고 소원성취하여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 / 화제의 책 /

## 엄마의 마지막 말들

박희병(국문75)

반소매 입고 안 춤사? 호스피스 병상에 누운 어머니는 반팔셔츠를 입고 병원을 찾은 아들의 걱정부터 입 밖에 냈다. 때로는 배고플까, 잠 못 잘까 염려하는 말을 앞세웠다. 말기암과 알츠하이머성 인지저하증을 앓으며 독한 약 기운으로 흐린 정신에도 그 말들은 또렷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돌이켜본 아들은 새삼 느낀다. "이 세상에 내게 이리 말할 사람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책 '엄마의 마지막 말들'은 그 아들, 박희병(국문75-79) 모교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어머니 입김연씨의 말들을 기록한 책이다. 고전문학과 예술사를 연구하며 연암 박지원과 문인화가 이 인상 등에 대한 저서를 낸 그는 어머니가 말기암 판정을 받은 후 1년간 휴직하고 간병에 매달렸다. 사모교이자 간병일기이고, 죽음의 의미와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현실까지 짚어낸 인문서다. 길어야 두세 문장, 혹은 외마디 외침. 단시(短詩)와 같은 어머니의 말에서 인문학자답게 의미와 은유를 찾아 해독하고 주석을 붙였다. 인지장애를 앓는 어머니의 말은 때때로 두서없고, 시공간을 넘나

들었다. 상경한 지 오래여서 한동안 쓰지 않던 고향 사투리도 병상에서 돌아왔다. 남들은 그저 맥락을 잃은 발화로 치부했지만 아들은 그 말들에서 당신이 지금 머무르고 계시는 어딘가를 헤아렸다. '아버지를 부르짖으면 소녀 시절 고향으로 돌아가 계시리라' 생각했고, '연탄불 갈아야 한다' 느닷없는 외침을 듣고선 자다가도 일어나 가족을 위해 연탄불을 갈던 어머니의 새벽으로 함께 돌아가서 뒤늦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되새겼다.

'출다. 옷 더 입어라; '돈 있나? 용돈 좀 주까?; '저 밖에 풀이 참 잘 자란다'. 부단히 주변을 관찰하고 가족을 챙기는 어머니의 말과 행동에선 살아서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안도와 행복감을 얻었다. "일반인의 눈에 호스피스 병실의 환자들이 생활도 없고, 그저 죽음을 대기하고 있는 존재에 불과하게 비칠지 모르지만 편견이다. 그분들에게도 나름의 생활이 있고 남루한 삶이지만 삶이 영위되고 있다"는 그의 말이다. '고 마이 손 잡고 집에 가져'던 어머니를 잠깐이라도 웃게 해드리려 초로의 나이에 덩실덩실 춤도 쳤다. "엄마가 아파도 인생은 흐르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환자가 병마와 싸우는 동안 보호자는 현실과 싸워야 한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간병인 제도 등에 대한 단상이 자연스럽게 뒤따른다. 어머니를 호스피스 병원에 모신 307일간, 규정에 따라 여섯 곳의 병원을 옮겨 다녔다. 다른 환자들처럼 어머니가 그저 향정신성 약물에 취해 있게 두지 않으려는 생각이 의료진과 부딪히기도

했다. 그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환자 보호자와 주치의 사이 '협치'가 필요하다"며 의료진이 처치가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호스피스는 삶의 본래적 과정과 단절되지 않았다며 각별한 윤리의식도 강조했다. 1년간 지켜본 어머니의 마지막은 '나는 어떻게 죽어야 할까라는 물음을 남겼다. 박 문은은 삶만큼 죽음도 "외롭지 자유롭게, 주제적으로 맞겠다"며 이제부터 원하는 죽음의 방식을 골똘히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어머니가 선물해주신 삶의 의미를 되새긴다. 학자 아들의 공부길을 평생 지켜봐준 어머니다. '내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안됐다며 간병하는 아들을 염려하기도 '희병이'가가 정말 공부 잘하더라'며 자랑스러워 하셨다. 동송동 문리대에서 함께 모교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던 날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을 떠올리며 노학자는 다짐한다. "이제 나는 지켜봐주는 엄마 없이 남은 시간 동안 공부길을 가야 한다. 엄마 말을 평생 가슴에 새기며 존엄을 아껴 공부하려 한다. 그게 엄마의 뜻일 것이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aa.org 로 보내주시시오.

### 원고 모집합니다





김지영 (사대 69)

/ 에세이 /

# 네개의 풍경, 70을 바라보는 어느 해 겨울

“초 겨울 눈도 맞고 비도 맞고 걷는다. 네 개의 풍경을 안고 일상으로 돌아온다”



سمى이었지. 일엽 스님은 만공 스님의 말씀을 따라 1960대 초까지 절필을 한다. 그리고 비로소 낸 책이 “청춘을 불사르고”라는 제목의 자서전. 자신의 애뜻한 사랑이야기. 사랑하던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당신과 인연이 다했습니다”라는 편지 하나 놓고 금강산에 들어가 스님이 되었다. 그래서 일엽도 속가의 인연 다 버리고 수덕사 견성암으로 갔다고 경허 스님, 만공 스님의 법맥을 있는 선승이 되었지만 속가의 마지막 사랑의 기억은 죽을 때까지 가슴에 묻혀있었던 듯. 덕숭총림 수덕사는 아직도 여일하게 서 있다. 거기 일엽의 자취는 없다. 절 안의 조그만 기념품 점에는 경허 스님, 만공 스님에 관한 책은 있지만, 일엽 스님 책은 없구나.

### 1 겨울 장미 - 수덕사 견성암

겨울 절 집 건너 밑에 장미 한송이. 출다고 피지도 않은 채 갈 수는 없지. 앙다문 꽃 봉오리, 그 붉은색이 처연하다. 까맣게 마른 가지 대공 속에 아릿한 생명이, 조는 듯 깨어 있는 듯, 숨 줄을 잡고 있을 터. 가슴앓이 사내 나그네의 시린 영혼과 공감이 맞을 듯. 나이 지긋한 비구니 스님이 묻는다. “암 것도 없는데 거기서 뭘 찍어유?” 대답대신 사내가 사진을 보여준다. 명함만한 액정 화면에 그림이 나타난다. 비구니 스님의 눈에는 꽃보다 자신의 허연 머리 뿌리가 크게 보인다. “더 이상 파르라니 짙은 머리가 나오지 않네.” 잠시 장미 사진의 붉은 꽃잎이 메마른 입술과 겹쳐 보인다. 사내는 김일엽 스님의 이야기를 읽다가 행하고 여기까지 온 길이다. 덕숭산 수덕사 견성암. 여성들만 공부하는 곳이다. 남향으로 큰 절 집이 세 개. 가운데는 이층에는 법당, 일층에는 스님들이 기거하는 곳인 듯. 양쪽으로는 스님들의 공부방. 그 겨울 장미는 가운데 절 집 동쪽 끝 화단에 있다. 등걸 만 남은 장미 나무 두어 그루, 그 사이에 유령처럼 서있다. 거길 스쳐간 그 많은 비구니들의 아직 다하지 못한 이야기를 뚫뚫 말아 마른 나무가지에 걸여 놓은 듯, 꽃 봉오리조차 묵연 의지가 결연해 보인다. 일엽 스님, 그녀는 1928년 서른 세 살의 나이로 출가한다. 당시 수덕사의 큰 스님 만공 스님이 그녀를 받아주며 삼십년 동안 글도 쓰지 말라는 충고를 한다. 이미 시인이며 여성운동가로 이름이 나있던 일엽에게 모든 걸 다 버리라는 말

들에게 등대불은 거부의 메시지이다. 혼동과 어둠 속에서 희망을 주는 불 빛이지만 다가오라는 부름은 아니다. 등대, 마주 내민 손 차마 잡을 수 없는 아쉬움이 안개 되어 머무는 곳이다.



### 3. 유리 해변 - 멘도시노 북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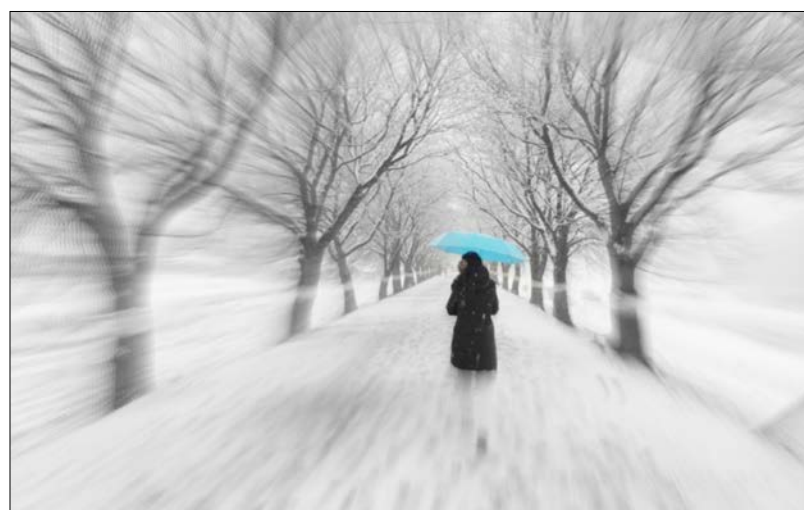
할아버지가 버린 것을 손자가 주어 가고... 우리의 운회 이야기도 그럴 듯하다. 멘도시노, 북가주 해안에 여류 나무가지의 매미처럼 달려있는 작은 도시이다. 지금은 관광객들의 혼돈으로 명맥을 유지한다. 한 때는 북가주의 벌목 사업으로 흥청거리는 도시였다고. 멘도시노에서 북으로 10 마일쯤 가면 포트 블랙이라는 더 작은 도시가 있다. 포트 블랙의 구경거리는 딱 하나 --- 유리 해변, Glass Beach. 가보면 실망한다. 바위 투성이 해변, 언뜻 보면 모래조차 안보이는 황량한 곳이다. 여기 저기 사람들이 바위 틈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이 보일 뿐. 지금 사람들이 찾는 것은 오륙 십년 전에 버린 쓰레기. 당시에도 작은 동네였기에 쓰레기 더미를 그냥 해안에 버렸단다. 그 쓰레기 속에는 유리병이나 사기

그릇 따위가 섞여 있었고 세월이 가고, 썩은 것은 썩어 없어지고, 깨질 것은 깨지고 깨진 유리 조각들이 파도, 밀물, 썰물에 씻기고, 닦이고, 갈려서, 작은 보석이 된다. 눈물 방울 같이 작고 예쁘게 다듬어진 유리 보석들. 모래 대신形形色색의 유리 조각이 덮힌 바닷가, 그래서 유리 해변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그런데 그 놀의 명성이 문제다. 여기 저기서 사람들이 구경 온다. 그리고 한 주먹씩 유리 보석들을 주어 간다. 유리 해변은 이름만 남게 된다. 모래는 우리가 되고, 사람들의 손 때에 익숙해지고, 쓸모가 없어지면 쓰레기가 되고, 쓰레기는 가는 유리알이 되고, 사람들은 다시 주어 가고, 실증 나면 또 버려지고, 다시 세월이 가면, 다시 모래알이 된다.

### 4. 낙동강변, 거기 그 여인

“십년이란 세월이 만들어 낸 만남이다. 눈 덮힌 이 길, 거기 걷고 있는 여인, 그리고 나의 눈동자 --- 이 셋이 이렇게 만난다. 선경이다. 언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모일까?” 육십년 지기 절친이 보낸 이별 노트. 그는 그렇게 그의 여인을 보냈다 한다.

범소유상 개시허망 (凡所有相 皆是虛妄) 명성, 이름이라는 것은 참 허망하다. 이제는 김 일엽 이름조차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다. 유리 해변이 유리 해변이라는 이름을 얻은 지 몇 해 되어서 유리가 사라진다. 등대, 외로운 뱃사람에게 희망의 빛이라고? 아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부의 불 빛이다. 사람, 사람은 간다.



### 2. 등대, 그 아쉬움 - 포인트 까브리요

등대는 만나는 곳이 아니다. 만남이 없으니 헤어짐도 없다. 그저 스쳐감이 있을 뿐이다. 포인트 까브리요 등대, 100년도 더 된 등대다. 북가주 멘도시노 근처에 있다. 요즘은 주로 관광지 역할을 하지만, 아직도 등대로서 구실도 하긴 한다고. 바닷가 그림 같은 초원을 지나면 더 그림같은 등대가 나온다. 작은 교회당 모양, 십자가가 있을 자리에 변칙거리며 돌아가는 등불이 있다. 복잡한 단단계 렌즈로 증폭한 빛이 바다로 산으로 흩어진다. 겨울 첫 비를 맞으며 등대 길을 걷는다. 등대를 찾아 걷는 사람은 구경꾼일 따름이다. 등대가 꼭 필요한 사람들은 등대까지 오지 않는다. 그



이회백 (의대 55)

/ 삶과 생각 /

# 나와 애완견의 인연①

미국인들은 개 취급하기를 거의 사람취급 하듯 한다. 개를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고 마치 개가 자기 가족의 일부분인 것 같이 다루며 생일잔치까지 벌어준다. 우리는 어떤가. 그야말로 개 취급한다. 소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것이 우리다. 소는 “牛公”이라고 마치 선비라도 되는듯이 부르다가 하면 그 사람 소 같이 일한다 하면 부지런함을 칭찬하는 소리다. 그러나 그사람 오뉴월의 개팔자다 하면 그의 행운을 축복하는 소리가 아니라 개으리라고 핀잔주는 소리다. 개자식, 개새끼, 개쌍놈, 개똥, 개판, 개지랄, 개싸움 개뽕따귀 등등 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부정일변도다. 경찰관을 비하해 부를 때 여기서는 돼지(pig)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개라고 부른다.

이러한 개에 대한 인식이 다른데서 비롯되는 의견차이의 일례가 개고기이다. 우리로서는 개고기 먹는게 하나도 이상한게 없는 데 이곳 사람들은 개고기 먹는다 하면 식인종을 만난듯한 표정을 짓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내젓는다.

1972년 내가 이 고장에 와서 몇달 안되고 내 딸이 아홉살, 국민학교 4학년이 다닐때다. 하루는 우리 아내(내 아내인데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데 습관이 되어 있다)가 “미순이 친구의 개가 새끼를 여러 낳았는데 하나 가져가라 하니 갖다 기르자고 미순이가 조르는 데 어땠소” “별소리 다 듣겠네. 개같은 소리 하지도 마!” 하고 일축해 버렸다. 한 일주일 있다가 아내가 다시 개 이야기를 꺼냈다. “미순이가 개가 귀여워서 자꾸 졸라대니 원 좀 들어줍시다.” “아니 요전에 안된다고 했지않아, 안되! 그까짓 개가 뭤데. 아니 그럴 대러다가 그 똥오줌 치닥거리러 어떻게 할거야. 이 추운 겨울에, 밖에 기를수도 없고.” 그때 나는 아파트 생활을 할때라 차고도 없었고 이곳은 겨울엔 영하 40도로 내려갈때도 있는 추운 곳이다. 그런데 다음날 아내가 다시 입을 열었다. “미순이 이야기 자기네 친구들은 다들 개를 가지고 있고 두, 셋 가지고 있는것은 보통인데 단 한마리만 기르자는데도 안된다

니, 하면서 글성거리며 모든 치닥거리러 자기가 다 하겠다고 하니 하나 데려 오라고 합시다.” 하도 조르는지라 내 철성같은 마음이 좀 약해졌다. “좀 생각해 볼께. 나참...” 틈이 벌어진것을 본 아내가 즉시 기회를 날아쳤다. “개는 낳은지 8주전에 데려와야 주인과 정이 붙고 제일 길들이기가 좋데요. 그러니 빨리 그러라고 합시다.” 귀찮아서 내뱉었다. “예잇 맘대로 해!” 그 다음날 미순이가 싱글벙글 하면서 강아지 새끼를 안고 집에 들어왔다. 이곳 아라스카에 흔한 늑대 사춘되는 허스키와 땅강아지같은 푸들(poodle) 과의 잡종으로 내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똥개”로 밖에 보이지 않는 보기도 싫은 개였다. 암개였는데 미순이가 씨씨(Sissy)라고 이름을 지었다. 밤에 갹갹대서 밤잠을 설치게 하지않나 응접실 구석에 신문지를 깔고 박스로 칸막이를 했으나 여기도 째름 저기도 째름 오줌 똥을 누워 제키니 개에 대한 악감은 날이 갈수록 더 해갔다. 몇개월후 집을 사고 이사했다. 차고가 있는 덕에 좀 형편이 나아졌다. 미순이가 열심히 시간만 되면 밖으로 나가 대소변 보는 훈련을 사칸덕에 집안에서 일을 저지르는 일이 줄어들고 또 집에 오면 반갑다고 꼬리를 흔드는걸 보게되니 나도 개에 대한 “악감정”이 차츰 가시게 되었다. 씨씨가 한살이 좀 넘은 그 다음해 겨울이다. 집에 들어오니 아내가 묘한 웃음을 지으며 나를 마지했다. 아내 얼굴을 바짝 쳐다보며 “뭘야?” “씨씨가 새끼를 낳았어요.” “어? 몇마리?” “여섯마리, 숫개 셋, 암개 셋.” “어디 있어?” 아내가 손으로 가리키는곳을 보니 큰 상자 속에 아직 눈도 뜨지 않은 쥐새끼만한 강아지 여섯마리가 오물거리고 있었다. “이것 야단 낫군.” 차고바닥에 나무판대기로 울타리를 만들고 신문지를 깔고 물그릇을 놓았다. 생의 신비를 보는듯했고 이왕 태어난 생명들이니 길러야 된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내 결심(은 일주일도 못가서 무너졌다. 밖은 영하 40도

의 추위가 맹위를 떨치는데 여섯 생명이 내놓는 오줌똥 냄새에 질식할 지경이었다. 누가 가져갈지도 없다. 그러니 방법은 한가지 밖에 없다. 우리말로 동물 임시보호소라고 할지 이곳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animal shelter에 보내는 것이다. 명색은 보호소지만 실은 좋게 표현하자면 잠재우는곳, 솔직히 말하면 죽이는 곳이다. 따라서 내손으로 안한다는것일 뿐이지 죽이는것이다. 당장 죽이지는 않는다. 사흘간 가둬놓고 갖다 길을 사람을 기다린다. 사형선고 하고 사흘 집행유예를 하는 셈이다. 물론 이론상으로는 사형선고 받은게 아니다. 사흘동안에 임자를 만나면 살아나니까. 그러나 그 가능성은 열에 하나도 안된다. 제일 예쁘장(?)한 숫개를 하나를 남겼다. 왜 숫개? 암개를 기르다가 혼란 경험을 살려. 그리고 그 이름을 재수 좋은 놈이라 하여 럭키(lucky)라고 지었다. 그런데 씨씨가 어느날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불일보고는 반드시 돌아오든 씨씨였는데. 온 동네를 다 돌아 다니며 찾았지만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다. Animal Shelter에 연락해 보았지만 거기도 없었다. 며칠 서운했지만 럭키에 정이 붙어 씨씨는 곧 잊어버렸다. 그런데 그 럭키도 잃었다. 씨씨와 똑 같은걸 반복했다. 개 때문에 애를 먹은 나는 다시는 개를 기르지 않겠노라고 맹세했다.

“응?” “우리 개 길러 봅시다.” “?” “개를 길렀으로서 동순이와 중순이 사이가 좋아질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역시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다. “여기 애들이 그렇게 개를 좋아하는것과 형제끼리 가 좋은것에 관계가 있는것 같애.” 역시 묵묵 부답이고 흑시 이이가 돈 것이 아닌가 하는 표정이다. “당신 베토벤(Beethoven)이란 영화 봤지? 거기 나오는 아버지를 봐. 개를 그렇게 싫어하던 아버지조차도 개를 통해 성격이 달라진 것을 거기 나오는 애들이 얼마나 화목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치고 악한 사람 없다 하듯 개를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사람이 좋은것 같애. 당신 생각나? 우리 우체부가 우리집에 배달왔다가 배달하는것도 잊어버린 듯 우리 씨씨를 꺼안고불을 부비고 야단칠 때 우리가 별볼 다 봤다고 쿤웃을 치든것? 그런데 지금 우리를 생각해 봐, 얼마나 달라졌는가. 비단 개에 대한 감정뿐 아니라 어떤 생명이든 생명이든 고귀하다는 훈훈한 감정이 든것 당신 느끼지 않아?” 한참 침묵이 흐르뒤 “그래 봅시다.” “고마워!”

신문을 뒤져서 개를 찾았다. 몇군데를 돌아 본후 금빛 사냥개(golden retriever) 가 섞인 콕커스파니엘(cocker spaniel)을 10불 내고 데려왔다. 돈 바깸다는 소리는 신문에 없었는데 공지 짜른 값이 그렇다기에 군말없이 내고 데려왔다. Spaniel 이란 말이 아첨자란 뜻이 있듯이 이 개는 주인 따르는데는 다른 개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개다. 7주 된걸 데려왔는데 갈색이 도는 금색 털을 가지고 있어 작은놈이 무척 귀여웠다. 우리 가족중에서도 웬일인지 이개는 나를 제일 따랐다. 병원에서 퇴근하여 집에 오기만 하면 뛰어올라 불을 그 간헐호랑이 야단을 피웠다. 그래서 내가 이름을 내 친한 친구라 해서 버디(Buddy)라고 지었다. <다음호에 계속>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차호미 (음대 63)

/ 살며 생각하며 /

### 스크랩북 에필로그① Scrapbook Epilogue

저는 아주 어릴때부터 마음에 드는 물건들을 오랫동안 모아두는 습관이 있었습니...

었다가 버리겠지요.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treasure 들을 정리하여 아이들에게 물려주는것을 나머지 인생의 목표로 삼기로 했습니다.

“

할머니가 되면서 틈틈이 그동안 모아 두었던 아이들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treasure들을 정리하여 아이들에게 물려주는것을 나머지 인생의 목표로 삼기로 했습니다.

”

즈가 노트 종이보다 크거나 콘서트 프로 그램처럼 페이지가 여러장이 있으면 복잡해서 보통 집에 있는 스캐너로는 감당 못하겠지요. 그리고 디지털파일은 보관하기는 쉽지만 누가 이 바쁜 세상에 그것들을 다시 보게 될까도 의문이었지요.

같이 진도를 나아가자 하니 때로는 머리가 하도 복잡하여 한참씩 쉬어야 했어요. 넘어 놓을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 평소 애용이 적은 dining room table 과 의자들 위에 이삿짐처럼 쌓아 놓았습니다.

우선 카운티에서 하는 스크랩북 클래스에 등록을 했어요. 작업을 시작할지 10년 가까이 되면서 어느 정도 진전하여 세 아이 모두 6학년까지 완성하였습니다.

방문 할때마다 모든 보따리들을 싸 짊어지고 지하실로 옮겨놓곤 했습니다. 격주로 청소부 오는 날도 마찬가지로 명절이나 손님들로 바쁠때는 몇주일씩, 때로는 몇달씩 공백이 생깁니다. 그러고나면 다시 일을 벌리는것이 겁나서 없기도 싫고 전에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까마득하고 한심했습니다.

와 다과를 준비하고 수도도 떨고, 오히려 방해가 될것입니다. 그 분들이 artistic presentation은 저보다 잘 할지 모르지만 버릴것 아닌것을 결정하지 못 할것이고 사진이 누가 누군지, 몇살때였는지 막연 할터이니 실제로 도움이 될수없고. 그냥 모두 제가 혼자서 해야 하는일 뿐이었습니다. 평소에 마음 놓고 무슨 일이나 의논할수있는 한국에 있는 여동생은 수도없이 하는 소리가 "제발 덕지덕지 많이 붙여 놓지 마. 언니가 수고 하는것 만큼 딸들이 고마워하지도 않을거라구. 당장 버리지도 못하고 결국은 애들에게 짐이 된다니까" 그러겠지요. 사실 큰애가 언젠가 말하기를 "엄마가 만들고 있다는 scrapbook 때문에 너무 애쓰지 마. 왜냐하면 내가 열살정도 까지는 좀 귀엽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답엔 아니거든. 그리고 옛날 것들 다시 보기도 무안하고 (embarrassed)." 했습니다. 또 언젠가는 둘째에게 아끼때 배꼽 떨어진 것과 baby tooth 들을 모두 간직하고 있다고 했더니 기겁을 하겠지요. 작업을 시작할지 10년 가까이 되면서 어느 정도 진전하여 세 아이 모두 6학년 (그때는Elementary school 이 6년) 까지 완성하였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 산행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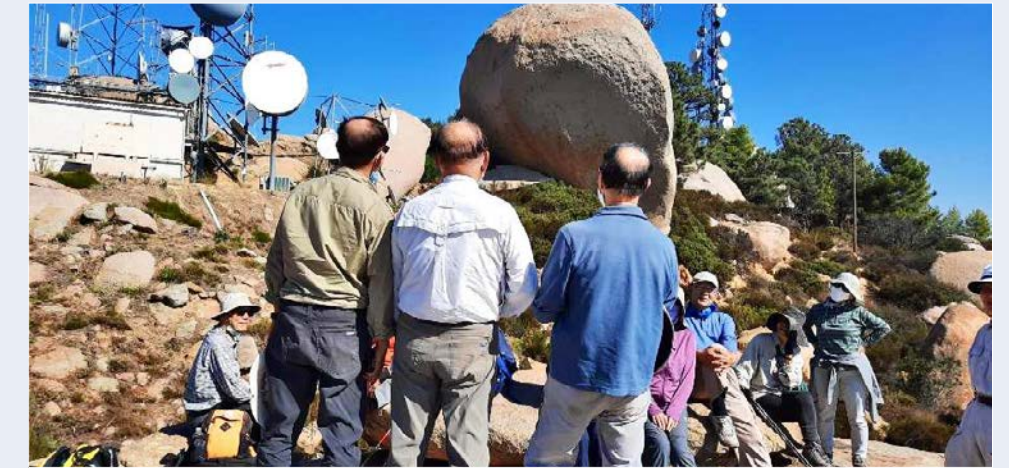
### Potato Chip Rock, Poway



박진국 (의대 65)

화창한 10월 말, 아침 9시부터 22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Lake Poway City Park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며 왕복 8마일의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3시간의 2000fts. gain hiking 후에 Mt. Woodson 정상에 있는 Potato Chip Rock에 도착하였습니다. 보통 때는 기념 사진 찍기위해 30분 이상을 기다려야 했지만 주중이어선지 기다릴 필요 없이 곧 각자가 원하는 몸짓으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에 공통점을 보고 남성 탈모를 Model로 사진찍고 "전기와 벼락을 맞았다"고들 외치며 즐거워들 하셨습니다. 점심 후 Summit Rock 중 하나를 골라 김동근 대장님 부부의 Lead로 Rock Climbing연습을 했습니다.

수많은 감자 바위들로 빼곡이 찬 산길을 내려 오는데 2시간 걸려 Park에 도착하여 저녁식사가 거의 마무리 되갈 때 김홍목 동문이 정중현 동문과 함께 도착하셨고 우리들이 어릴때 먹던 봉어빵을 나누어 주셔 놀라운 Comrade 정신에 또한 박수를 치며

Potluck의 후식으로 즐겼습니다. '시골 인삼'이라는 말이 있지요. Park Ranger가 우리 Table에 와서 말하기를 6시에 공원을 닫는데 6시 반까지 식사를 끝내고 나가도 좋다고 친절히 알려주었고, Can Liquor는 할 수 있다고 하여 한 때는 world contest award였던 San Diego IPA beer를 Ice Box에 가져 오신 선배님께 감사하며 즐겼습니다.

잊지 못할 SD 동문 선배님들의 훈훈함 마음을 생각하니 Potato Chip Rock 산행은 좋은 '인주'였습니다. Potluck 저녁이 끝났을 때는 아름다운 Poway Park이 이미 어두어져 있었습니다. 이 훈훈한 밤에 다시 집으로 출발하였습니다.



Potato Chip Rock 위에서



# 관악캠퍼스 정문 **자** 보행 공간된다

전기차충전소 쪽에 새 도로 내

드나드는 차량 우회 시키기로

3월 착공 8월 중 완공 목표

사람 중심 열린 공간 변신 기대

'샤' 모양으로 잘 알려진 모교 관악캠퍼스 정문은 왕복 4차선 도로 위에 서 있다. 항상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기념사진 찍기조차 쉽지 않다. 고아한 대학의 상징으로서 정문의 의미는 약해지고, 일일 차량 1만5,000대가 드나드는 '교통 구조물'이 됐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오는 8월이면 이같은 정문 주변 풍경이 확 달라질 전망이다. 모교가 정문 주변 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서울대 정문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주요 골자는 △정문 주변을 열린 공간으로 전환하고 △정문 옆 자동차 우회도로를 확보하며 △정문 앞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것. 현재 정문 구조물을 그대로 두고, 주변 환경을 바꿈으로써 서울대 정문의 정체성을 재정의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캠퍼스위원회를 통과한 후 3월 착공, 8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들어섰다.

현재 추진중인 안에 따르면 현재의 보행로가 확대돼 '샤' 정문을 품은 광장이 조성되고, 정문 아래로 차 대신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게 된다. 정문을 관통하던 차도는 전기차

충전소 쪽에서 들어와 정문 옆으로 지나도록 우회도로를 낼 계획이다. 정문 부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매일 혼잡을 빚는 정문 앞 교통 동선도 매끄럽게 정리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정문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강준호 기획처장은 지난해 6월 학내 구성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업의 취지를 공유했다. "그동안 사람이 아닌 차들이 정문 아래를 달리는 살풍경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여겨왔다"며 차량 중심적인 현재의 정문 환경이 야기해온 문제점을 설명했다.

가장 큰 문제는 안전성이다. 보행자가 지금의 정문에 가까이 다가가려면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로 내려가야 한다. 졸업생과 방문객이 차도에서 위태롭게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도 자주 보였다.

정문 안팎의 교통 흐름도 원활하지 못했다. 왕복 4차선 도로 위에 조형물이 놓여 가용차로는 사실상 2차선이었다. 정문 옆으로 학교를 빠져나가는 길을 추가했지만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모양새다.

정문 부근에 강남순환도로 나들목이 들어선 후 차량 통행과 사고 위험은 더욱 늘어났다. 정문 앞에 신림선과 서부선 등 경전철역이 들어서길 것을 감안하면 교통 환경을 정비해 둘 필요가 있었다.

모교는 정문을 중심으로 광장을 조성하고, 정문옆에 왕복 4차선 도로를 새로 만들어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모교 진입차로를 2차로 확보해 병목현상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문 앞 교차로에서 모교로 진입하는 동선은 좀더 직선으로 다듬어진다.

관악구청 방면에서 학내로 진입하는 버스차로도한 차선 늘리기로 했다.

안전 문제와 별개로 현재 정문을 둘러싼 환경이 학교의 상징인 정문을 권위적이고 고



모교가 추진하는 정문 환경개선 계획을 현재 모습 위에 표시했다. 차량은 정문 옆 우회도로로 통행하게 된다.

립된 이미지로 만들고 있다는 아쉬움도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이 됐다. 학내 건축으로는 드물게 초기 단계부터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강준호 처장은 "지난해 6월 기획처에서 학내 공모전을 열어 새 정문 주변 환경의 콘셉트와 명칭 등의 의견을 받았고, 학사위원회를 통해 학장단 의견을 모은 결과 대부분

정문 환경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공모전에 참여한 진사광(대학원18-20) 동문은 "흔히 '학교 앞에서 보자고 말하듯 학교 정문엔 공공성과 장소성이 있는데, 지금의 서울대 정문은 공공장소보다 상징의 역할에만 머무르는 것 같다"며 "도시의 랜드마크이기도 한 모교 정문에 공공성과 정체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 (간호 69)

/ 여행기 /

## 맘껏 떠날수 있던 그때를 그리며

집을 나서는 순간 우리 앞에는 길이 있다. 그 길을 따라 가면 갈림길이 나오고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목적지가 결정된다. 목적지를 향해 놓고 가장 빠른 길을 검색해서 가는 수도 있고 경치 좋은 길이나 복잡하지 않은 길을 선택해 갈 수도 있다.

국립공원을 찾아 미 전국을 돌아다닐 때면 국립공원 관련 책자와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는 책을 늘 함께 가지고 다녔다. 목적지 못지않게 가는 길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 교통부에서 지정한 150개의 아름다운 미국의 길이 있다. 내가 갈 목적지 근처에 해당되는 길이 있으면 좀 돌아가더라도 꼭 가게 된다. 때로는 돌아오기를 잘했다고, 여길 못 보았으면 어쩔 뻔했을까 하는 탄성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만 낭비했다는 불평이 나오기도 한다.

여행을 떠나면 많은 길을 만난다. 태평양 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뻗은 패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에 처음 갔을 때는 너무 좋아 차가 설 수 있는 곳마다 차를 세우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오래된 주의 로그 옴프와 길에서는 울창한 숲 속으로 강을 따라가다 국립공원 안에 있는 조용한 캠핑장에 들어가 텐트를 치고 모닥불을 피우면 5성급 호텔이 부럽지 않았다. 유타의 12번 길은 에스페니 황금빛으로 물들 때 가야 한다. 미국의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게 해 주는 66번 길도 있다.

이다. 승용차나 뺨은 가지도 말라는 길이다. 안내소에서 경고한다. 그 길을 가면 차 네 대 중 한 대는 타이어에 구멍이 나고 견인 비용은 1000불에서 2000불 정도 든다고 알아서 가라고 한다. 그 길 끝에 절벽이 있었다.



절벽 끝에 서서 아래를 보면 수직으로 900미터 아래 그랜드 캐년을 지나온 황토 빛 콜로라도 강이 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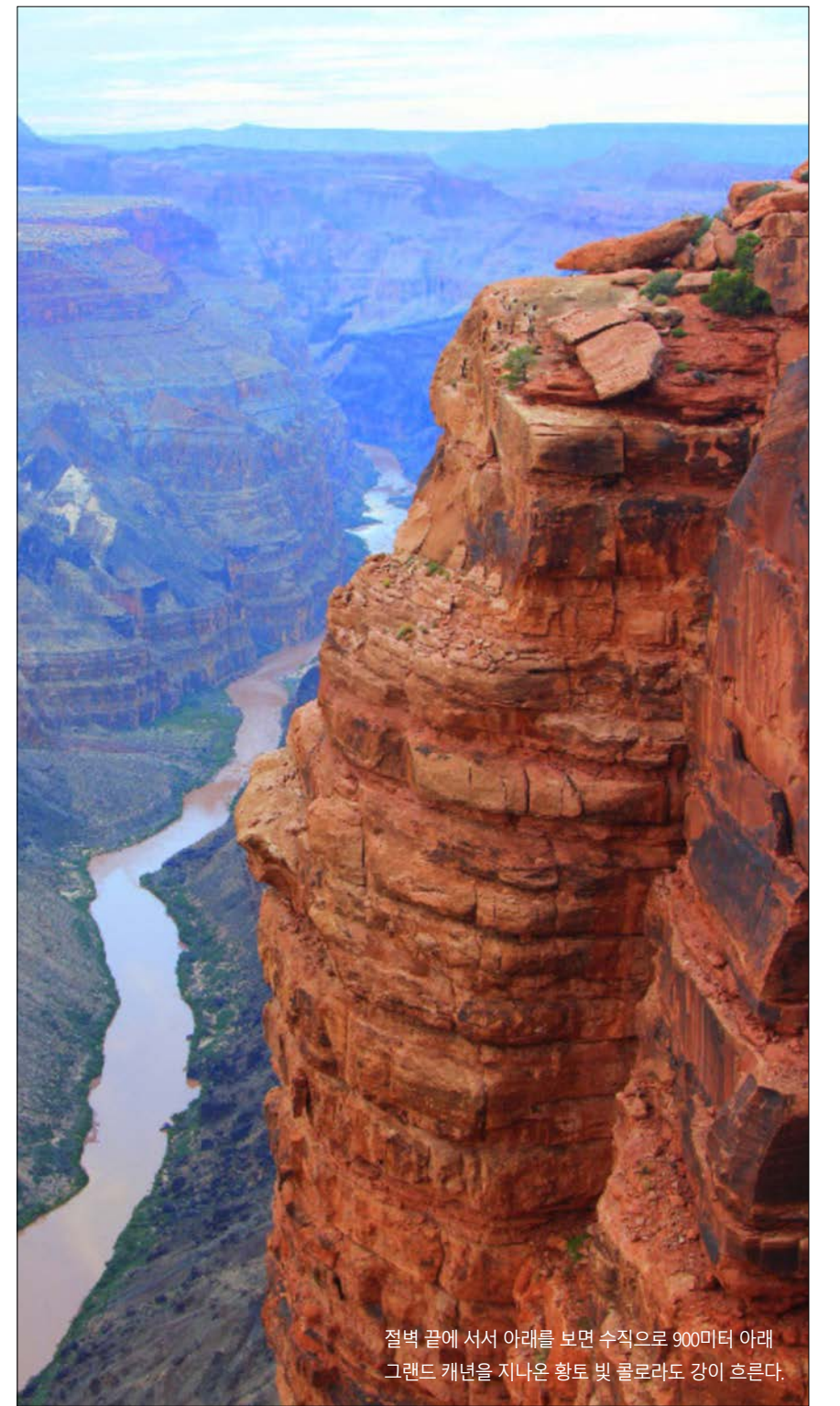
바위틈에 뿌리를 내리고 살던 나무가 수명을 다하고 까맣게 서있었다. 그 검은 나뭇가지 사이로 붉은 해가 졌다.



캠핑장에 텐트를 치고 먼저 와 있던 이웃에게 인사했다. 오클라호마에서 3일을 혼자 운전해서 온 남자다. 일 년에 한 번은 꼭 와서 일주일 머물러 간다고 했다. 자기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말하라고 한 후 밤에 꼭 하늘을 보라고 했다.

그곳은 나무나 석탄, 어떤 종류의 불도 지퍼서는 안 된다. 어두워진 후 일찍 잠을 청했다. 얼마를 잤는지 모르지만 밤하늘을 꼭 보아야 한다는 그의 말이 생각나 텐트를 열고 밖을 보았다. 수천 개의 별이 쏟아져 내렸다. 절대 정적과 절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이 모두 나를 위해 빛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지금 이 순간 그 황토길을 따라가서 그 바위 위에 머물고 싶다. 쏟아지는 별들을 맞이하고 싶다. 어쩌면 일 년에 한 번은 꼭 온다는 착해 보이는 그 사람을 만날지도 모른다. 이번에 만나면 긴 이야기를 해 보고 싶다. 가고 싶을 때 떠날 수 있던 그때가 간절하게 그리다.



절벽 끝에 서서 아래를 보면 수직으로 900미터 아래 그랜드 캐년을 지나온 황토 빛 콜로라도 강이 흐른다.



## 동창회비 후원금 납부,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 온라인 후원방법

1.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웹사이트 [snuua.org](http://snuua.org)에 접속하여 "동창회비 후원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동창회비 및 후원금 페이지에서 노란색 **Donate** 버튼을 눌러서 **PayPal** 후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서울대 로고가 있는 **PayPal** 화면이 나오면 가) 동창회비 또는 후원금 액수를 선택한다. \$75, \$150, \$200 중에서 선택하거나 직접 후원액수를 적을 수 있습니다. "Write a note"란에 이름, 출신 단과대, 입학년도, 전화번호, 기부금 내역을 적습니다.

나) Credit 또는 debit 카드의 내용을 기입하고, billing address를 적습니다. 동창회가 내 주소를 알 수 있도록 선택 사항을 표시합니다.

다) 맨 아래에 전화 번호와, email 주소를 적습니다. 그리고 "Donate Now"를 누르면 후원이 됩니다.

4. 그 다음 후원액수가 잘 보내졌다고 확인하는 화면이 나오입니다.  
5. 몇 초 후에 후원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페이지로 돌아옵니다.

### ■ 수표를 미주동창회 사무실로 보내는 방법

1. 후원하는 수표를 보내실 때 별도의 종이에 동문님의 성함, 출신단과대, 입학 년도, 전화 번호, 기부금 항목을 적어주십시오.
2. 수표의 수취인(payable to)은 SNUAA-USA 입니다.
3. 동창회 사무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SNUAA-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UL-2, Flushing, NY 11358

후원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는 전화 718-463-3131 또는 이메일 [finance@snuua.org](mailto:finance@snuua.org)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이 멋있어 기억되는 길도 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길(Top of the World)은 알래스카에 있다. 태양을 향해 가는 길(Going to the sun road)은 클레이시어 국립공원을 가로지른다. 하늘 속에 있는 섬(Island in the sky)길은 캐년랜드 국립공원 안에 있다. 그 모든 길 중 지금 내가 간절하게 다시 가고 싶은 길이 있다. 국가에서 지정한 아름다운 길은 아니다.

비가 오면 갈 수도 없는 황토길, 61마일(98Km) 가는 데 세 시간 걸리는 길이다. 세 시간을 가도 차 한대 만나기 힘든 험난한 길





최은관 (상대 64)

/ 역사 칼럼 /

## 역사에서 유명한 돈 이야기

- 다시 읽어보기

\*2018년 4월 회보에 게재된 칼럼으로 유익한 자료라 재차 게재합니다.

-편집부

옛 성현들은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 같지만, 성현이라도 그들이 살던 시대에 경제 활동을 해야했고, 돈 이야기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돈 중에도 역사적으로 유명한 돈을 살펴보자. 기원전 5-6000년 전부터 인류는 강 유역에 정착하여 농사를 시작하였다. 농업은 사냥이나 먹을 것을 땅에서 줍는 것보다 생산성과 안정성이 높아서, 사람들이 강 유역에 모여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생기는 마찰을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법전이 생기기 시작했다. 셈 족속의 사르곤(Sargon) 왕이 메소포타미아를 점령하고 (기원전 2300년 경), 다시 셈 족속이 바빌론 제국을 세운 뒤에 함무라비(Hammurabi) 법전이(기원전 1750년 경) 만들어졌다. 이 법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같은 기초적 개념이 담겨있고, 이것은 후일에 유대인들도 빌려간 개념이다. 한반도에도 기차조선 시대에 팔조법금이 있었다고 한다.

농업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물물 교환을 했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 무역이 시작되었고,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 해외무역은 처음에 말없는 물물교환이었다. 지금 레바논 지역에 살던 페니키아인(Phoenicians) 은배를 타고 다니면서, 지중해의 여러 해안에 배를 대고 방어가 없으면 사람들을 생 포하여 노예로 만들어 팔아먹었고, 방어가 잘되어 있으면, 그들과 물물교환으로 장사하였다. 물물교환에서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 원하는 물건값과 수량이 같아야 하니, 참으로 불편한 교환 방법이었다. 일반상품을 교환의 매체로 써 보았으나, 대부분의 상품은 부피가 많거나 곧 부패하여 쌓아 놓을 수 없었다. 상인들은 써거나 산화하지 않고 가볍게 지니고 다닐 수 있는 돈의 필요를 차츰차츰 깨닫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쏘라 때부터 무늬가 오지(cowry, 카우리조개)가 돈으로 쓰였다. 조개 패(貝)자가 카우



### 1. 금속화폐의 시작

기원전 550년 경에 아나톨리아 (Anatolia,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던 리디아(Lydia) 왕국의 임금 크로이소스(Croesus)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금전을 찍어냈다. 이 임금은 팍투루스(Pactolus) 강에서 자연 상태로 나는 일렉트럼(electrum)으로 금전을 찍어냈다. 이것은 금과 은이 대체로 절반씩 섞인 물질이었고, 이 금전은 금과 은의 중간 색이었으므로 이를 white gold로 불렀다. (白金이 아니다) 다른 금광에서도 금전을 찍어낼 수 있었지만, 그러한 금전의 순도를 사람들이 당장 확인하거나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한 금전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크로이소스의 금전은 표준화되어 그 순도와 양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금전은 널리 쓰이게 되었다.

지난 20세기에도 금속 화폐의 기본 요건은 신용이었다. 금의 순도를 믿을 수 있어야, 금화가 널리 통용되는 것이다. 약은 사람들이 은 속에 값싼 납이나 철을 넣고 겉에만도 금을 하여 가짜 금화를 만들었지만, 대중은 손쉽게 가짜 돈을 구별할 수 있었다. 금은 무른 금속이므로 금화를 이로 물어서 자국이 나면 순금이고 이가 아프면 가짜 돈이라는 것을 쉽게 사람들이 판별하였다. 그래서 진짜 금화를 시중에서 주고 받으면 사람들에게 물어뜯겨서 곧 모양이 일그러졌고, 새로 주조한 금돈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사용하지 않고 집에 보관해 두었다. 시지커스(Cyzicus) 마을에서 주조한 스테이터(stater)는 그리스어로 무게라는 뜻. 마찬가지로, 영국의 파운드도 무게 단위이다. 금과 은을 무게를 달아서 지불했기 때문에, 무게 단위가 돈의 이름이 되었다.

### 2. 그리스의 금은전 발행

기원전 330년에 페르세폴리스(Persepolis)는 태양 아래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다고 한다. 여기서 알렉산더의 군대가 5:1로 열세였는데도, 이 도시를 정복했다. 그의 군대가 여기서 약탈해간 금과 은은 120,000달란트였

는데, 이 중에 금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수사(Susa)와 엑바타나(Ecbatana)에서 약탈한 것까지 포함하면 200,000 달란트가 넘었다. 이 중에 금이 10분의 1이었다고 가정하면, 1 달란트가 약 1000트로이 온스(Troy ounce)이니까, 1온스에 1천 달라로 계산해도, 그리스는 페르시아를 정복한 결과로, 오늘날의 시가로 최소한 약 2백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당시에 은값은 금값의 1/4이었다.) 이렇게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을 그리스로 가져가서 풀어 놓았으니, 그리스뿐 아니라 그리스와 무역을 하던 나라들의 경제가 크게 부양되었다. 누구나 그리스와 무역하기 위하여 그리스어를 배우게 되었고, 그리스어는 지중해 세계에서 공통어가 되었다. 그래서 신약도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다.



이것은 케자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데나리온 은전(대영 박물관)의 사진이다. 티베리우스(Tiberius)는 서기 14년부터 37년까지 제위에 있었으니,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다. 그러나 티베리우스가 찍은 데나리온 은전은 예수의 시절에 많이 통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마커스 안토니는 황제가 된 적이 없으니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도 된다. 남은 것은 케자가 살아있을 때 주조된 이 데나리온과, 아우구스투스 때에 주조된 데나리온이다.

### 3. 케자의 은전과 금전

예수님이 생애의 끝무렵에, 어느날 성전에서 가르쳤을 때 산헤드린(유대인의 최고 법정)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체면을 깎으려고 대표를 보내어 어려운 질문을 던지

게 했다. 누가복음 20장 (22-25절)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 니이가 불가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 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리누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정탐꾼들이 예수님에게 내민 은전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 데나리온은 얼마나 가치가 있었을까?



이것은 케자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데나리온 은전(대영 박물관)의 사진이다. 티베리우스(Tiberius)는 서기 14년부터 37년까지 제위에 있었으니,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다. 그러나 티베리우스가 찍은 데나리온 은전은 예수의 시절에 많이 통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마커스 안토니는 황제가 된 적이 없으니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도 된다. 남은 것은 케자가 살아있을 때 주조된 이 데나리온과, 아우구스투스 때에 주조된 데나리온이다.

로마의 제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Claudius, 서기 41-54년)는 제위에 오르면서 “케자”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택했고, 그 이후 로케자라는 칭호로 로마 뿐 아니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다루어 권위의 상징으로 쓰게 되었다.

예수님의 시절에 케자는 이미 죽었고, 첫 황제 아우구스투스도 죽었으며, 티베리우스가 황제였다. 티베리우스 이후에 “케자”라는 칭호가 쓰였으니, 사복음에서 예수님이 언급하는 “케자”는 줄리우스 케사 자신을 의미하고, “황제”라는 칭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케자는 또한 살아있는 동안에 초상이 은전에 처음으로 처음으로 나타난 사람이다. 그러면 이 데나리온 은전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하루종일 일하는 보통 노동자의 임금이요 한 데나리온을 지불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계산하면 50 - 100달러에 해당할 것이다.

### 4. 디오클레시안(Diodetian)의 금메달

디오클레시안은 서기 284년부터 305년

/ 기고 /

## 미주 서울대인, 이순신 세계교육의 활력소가 되다

- 이순신 세계교육 성과 보고 -



이내원(사대 58)

서울대 미주동문 일부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지 2년만인 2020년의 이순신 세계교육 성과는 어찌되었는지 자못 궁금해 질만 합니다. 더욱이 작년이 짓궂게도 COVID-19에 온 지구촌이 초토화되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둥댄 한해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서울대인들의 정성이 신통력을 발휘 했는지 역대 최고의 성과를 이룩하여 기쁜 마음으로 그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참가한 한국학교의 소속국을 먼곳부터 들어보면, 유럽의 네델란드, 러시아, 아시아의 중국과 일본, 그리고 남미의 아르헨티나, 페루, 북미의 멕시코, 미국, 캐나다등 9개국에서 약 100편의 작품이 제출 되었습니다. 둘째 응모 기준을 과거와 달리 쓰기, 말리기, 그리기로 다양화하고 사용 언어도 한글과 영어로 2원화 하여 해외 학생들의 참여 의욕을 높이고 내용의 다양성을 추구 하였습니다. 셋째 심사에 있어서는 주로 미주 한국학교 교사 중심으로 하였으나 이번에는 한국의 정상급 이순신 교육 학자이신 임원빈 박사께서 선듯 심사위원직을 수락 해 주셔서 많은 도움과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임원빈 박사께서는 한국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 모교 교수를 지내신 후 충무공의 고향 아산에 설립된 순천향대학교 이순신 연구소장을 역임 하시고, 몇년간 창원에 새로 개설된 이순신 리더십 국제센터 이순신 리더십 연구소장을 역임하신 정통 이순신 연구 학자 이십니다.

임원빈 소장께서는 심사후형으로 해외 한국학생들의 이순신 열기와 수준에 놀랐다 말씀 하신 바 있습니다. 넷째 선정된 학생 작품은 사진과 같이 <제4회 작품 공모전, 충무공 이순신 알리기> 총136 페이지 전자 파일로 작성되어 www.yisunsinworld.com 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파일이 적지않아 바로 보여 드릴 수 없어 안타까우나 아래 간사에게 연락 하시면 쉽게 받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교육성공을 보내 주신 동문님은 수심명에 이르나 그 중 특이한 사연을 지닌 몇분을 소개하여 동문 여러분의 알뜰한 성원에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지원성금 1호는 샌디에고 간호대 이영신 동문님 이신데 지



제4회 작품공모전: 충무공 이순신 알리기 공모전 책자

원금 논의가 시작도 되기전 ‘그런 활동에는 경비가 나갔지’ 생각 하신듯 자진 송금 하셔서 (이순신 해외교육 지원 원조)가 되셨습니다.

또 다른 CA의 간호대 47 학번 이승희 선배님은 2년째 송금을 하셨는데 학번으로 보아 90대 초반이실듯 한데 젊은 후배들에게 뒤질일 아니라는듯 활기 차게 지내시는 원로 선배님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시카고의 L 대선배님은 저와 두어 번 이메일 교신을 가지신바 있었는데 연세가 높은 편이라 깜박 잊을 수도 있어서 5년분을 미리 보내신다고 감동의 사연을 곁들여 전해 오신 바 있습니다.



이것은 디오클레시안의 금메달이다. 초기에 기독교도를 박해한 것 외에, 디오클레시안은 온건하고 현명한 정치가였던 듯하다.

정치적 권력에 그다지 애착이 있지 않았던

듯하다. 서기 305년에 정계에서 은퇴한 뒤에는 디오클레시안은 달마시아(지금 크로아티아 지역) 해변에 궁전을 짓고 채소밭을 가꾸며 살았다고 한다.



이 콘스탄틴 메달리온은 326년 경에 주조되었는데,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모습이 새겨진 것이 특징이다.

2016년 세계화 교육 착수 이전에 이미 미주교육을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체마다 제기되는 재정 해결을 위하여 약대 56 학번 P 동문 선배님, 54 학번의 수의대 L 선배님, 그리고는 지난해 10월 많은 동문들의 안타까움 속에 우리 결을 떠나신 농대 65 학번의 안선미 전 워싱턴 회장님등 네 분의 특지 후원자가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중 가장 늦게 참여 하셨던 안선미 동문님은 비단같은 마음씨에 손이 크셔서 3년 내리 가장 많이 기여 하셔서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떠나시기 달반 전인 8월 27일 낮 오랜만에 전화 문자 안부를 보냈더니 7시간 뒤에 회답이 왔는데 (주님이 주신) (감사합니다) 딱 두 마디 뿐이었습니다. 직감적으로 호스피스 단계에 이르렀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속수무책, 마음만 졸이던 중 10월 6일 결국 부음이 들려왔고 가족장으로 모신다는 통보만 받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 간사 이우진 동문으로 부터 안선미 회장의 지원금 수표를 받았다는 통보를 받고 경악 했습니다. 그 엄청난 단계에서도 이순신 교육의 어려움을 안타깝게 생각 하시어 마지막 도리를 다 하신것이었습니다. 마치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적탄에 맞아 숨을 거두시면서도 나라를 먼저 걱정 하시어 자기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하신 장수의 도리가 겹쳐 보였습니다.

다음달 4월 28일이면 구국의 영웅 충무공 탄생 476 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날을 맞아 충무공의 위대한 정신과 아름다운 인성을 씨 뿌려 가르칠 귀한 사명과 기회가 바로 우리 서울대 미주동문을 손안에 있음을 직시하고 작은 성공 모으기로 서울대 미주동문의 뜻있는 기여사업이 온 세게로 번져나가기를 기대 합니다.

현재의 연간 모금 실적은 재외동포 재단의 연 \$1,500 을 포함 \$12,000 수준이며 대부분이 상금과 통신비에 충당되고 자원봉사로 인건비 지출은 없습니다. 세계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간예산 \$30,000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동문님들의 성원을 바라며 충무공 세계화 교육에 대한 성원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콘스탄틴(Constantine)과 막센티우스(Maxentius)는 312년에 밀비아스 다리(Milvian bridge)에서 전투를 벌였다. 콘스탄틴은 어딘가 행진하는 가운데, 태양빛 속에 X자와 “이것(징표)으로 이길지어다”라는 글을 보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징표를 설명해 주었다고 한다.

콘스탄틴은 전투하 기전날에, 군사들에게 이야기해 해주고, 군인들 방패에 XP (카이로, 그리스도의 두문자)를 그리게 하였다. 당시에 막센티우스의 군대는 12만이나 되었고, 콘스탄틴의 군대는 10만이 채 안 되었지만, 콘스탄틴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지한다는 것을 믿고 이 방패를 착용하였고, 용기 백배하여 다리 위에 집결했던 적들을 단번에 무찔러 서, 콘스탄틴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 이로써 콘스탄틴은 사두정치를 끝내고 유일하게 로마의 황제가 되었다.





김병권 (문리 63)

/ 소설 /

## 어느 개장(改葬)①

‘가야 역사 보존회’ 그녀는 15 피트 정도의 세로로 된 간판을 보고 후유 한숨을 쉬었다. 부산에서 대절한 택시 운전사의 도움으로 찾기는 찾은 것 같은데 역사 보존회와 그녀의 임무가 맥이 닿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지금 이묘의 유골을 파묘하여 화장하려 가는 길이었다.

집은 개인 저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듯하였으며 반 에이크 정도의 터에 주황색 기와가 덮혀 있었다. 열린 대문으로 열릴 보니 집 안채와 행랑채로 나뉘어져 있는 마당 한 쪽 끝에는 텃밭이 있어 무엇인가 초록색 푸성귀가 흙덩이와 섞여 있었다. 숙연은 좀 조심스라위 쭈뼛했다. 그녀는 20여년 넘게 뉴욕에 살면서 이런 땅과 마당이 딸린 고옥에 무한한 친밀감을 갖고 있었다. 오늘 실제로 보니 전자문을 열고 학동을 다스리는 훈장이 대청 마루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원래 영어를 전공해 인문이나 방송통신계통에 장래의 진로를 희망하게 유골을 잡고 있었으나 얼마후 역사와 고고학에 큰 흥미를 느껴 그 쪽으로 많은 강의를 듣고 여기저기 휘젓고 다녔다. 처음엔 가까운 친구의 권유에 따라 허드슨 강변의 포트 에드워드란 곳에서 유물 발굴에 참관하였다. 그곳에선 400여년전 프랑스군과 인디언의 전투가 있었다고 하며 지도교수가 학생들과 자원자를 동원하여 감독하였는데 호기심이 발동하여 구경삼아 갔다. 지도교수는 유물을 발굴하고 거기에서 얻은 유물에서 책을 쓰고, 퍼내 연방정부로부터 예산을 타내었다. 그냥 재미삼아 친구 따라 강남갔다가 그녀의 앞날을 바꾸는 큰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고고학과 인류학과의 많은 저서를 탐독하고 수강하였다. 그후 그녀는 현장 실습으로 버지니아의 ‘월리암스버그’ 와제임스 타운의 정착지에서 얻은 경험으로 졸업논문을 썼다.

엄마는 숙연이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며 발굴작업에 매달리는 것을 보고는 ‘저것이 무슨 운기가 달아 저렇게 발굴작업에 매달리는구나!’ 하고 조용히 생각할 뿐이었다. 그녀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곳이 뉴욕 자연사박물관이었다. 센트랄 파크 서쪽에 네 개의 브락에 걸친 대형 박물관에서 그녀는 자원 봉사자로 관리, 슬라이드 제작 및 큐레이터의 프로젝트의 참여 등이 주임무였다. 이중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

그녀의 어머니 남심은 지난 겨울 집앞 층계에서 미끌어져 크게 다쳤다. 고관절과 척추부를 못쓰게 되어 가정부를 고용하여 식사와 집안 일거리를 돕게하였다. 아랫층은 차고로 되어 있으며 거주지는 2층과 3층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사람의 두 키 높이에서 넘어져 부상이 꽤 심각했다. 바로 그때 어머니는 한국에서 진외당숙으로 부터 한 통의 등기 편지를 받는다.

‘... 종종 아산이 산업특구인 개발회사로 판매가 계약되었다. 이 때에는 정부와 김해 시가 주출면 일대를 생명용항 특구로 지정하여서 개인이 팔가불가할 일이 아니다. 다음달 부터 아파트와 첨단 의료기관의 삽질이 시작된다고 하니..’

간단히 말해 묘지를 이장하든지 아니면 불도저가 시신을 마구 파헤쳐 꿈자리 사냥케 하지 말라는 최후통첩이었다. 작년에도 묘지 이장건에 대해 편지를 받았으나 무슨 일이 겹쳐 차일피일 미루다가 크게 다친 후 급박한 서신을 받게 되었다. 물론 숙연은 엄마로부터 이묘의 묘가 김해의 먼 친척 야산에 묻혀 있어 언젠가는 이장을 하든지 아니면 화장을 해야 된다는 언질을 들었으나 그냥 그러려니 했다.

‘... 너도 알다싶이 엄마가 이렇게 다쳐 끔찍 못하고 있다. 너의 아빠도 약국일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오직 너만이 이 일을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 어찌겠나.....’

숙연은 다음날 직장에 가서 3주간의 휴가를 내었다. 그녀가 이때 까지 보아온 황골과 미이라 시신은 전부 3, 400년된 옛 정착민이라든가 미국 원주민의 유물이라 학문적인 관점에서 관찰하였지만 가족의 목을 직접 쳐야 한다는 사실에 두려움과 흥분이 교차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당숙 아저씨로부터 조언을 구하게 되겠지만 뒷자리를 어떻게 썼으며 죽은 이묘가 어떻게 누워 있는가 등에 대해서 여러 의문이 떠 올랐다. 어머니가 역사학회에 일단 문의해보라고 한 것은 엄마가 그 학회의 회원이라도 되는지 대해서도 알 바 없었으며 중요한 것은 묘의 이장이 급선무였다.

숙연은 마당에 사람이 열른거기기를 바랐으나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고 힘껏 부르니 그제서야 안채에서 어떤 남자가 나타났다.

‘어떤 일로 오신지...?’

‘저는 돌아가신 이묘의 일로 뉴욕에서 온 숙연이라고 합니다.’

‘.....?’

사내는 앞 머리칼이 반쯤 벗겨져 나이가 50대 넘게 보였으나 실제로는 그 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으며 회색 가디건과 흰형 한 무색 바지 그리고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그가 안내한 방으로 들어가자 타월형 큰 탁자 주위로 천으로 칸 듯한 의자가 여덟 정도 놓여 있고 대형 흑백 사진 몇개가 벽에 걸려 있었다. 그 하나는 몇 사람이 인골, 두개골을 확대경으로 비쳐보는 사진과 또 사진은 석조관 뚜껑을 열고 해골 시신을 조사하는 사진과, 파묘하여 썩은 관을 조사하는 사진 이었다. 숙연은 오늘 방문한 목적을 간단히 설명했다. 주출면 야산에 이묘의 묘가 있다. 묘지가 있는 야산은 아버지의 진외사촌 즉 종종중의 장손인 아저씨가 상속 받은 땅이었는데 정부와 김해시의 소유권 등기 이전으

로 땅이 재개발하게 되었다. 공사전 이묘의 묘를 파묘, 화장하여 그 뱃가루를 항아리에 담아 다시 뉴욕에 돌아가야 하며 어머니가 이 학회에 들려 의견을 타진해 보라고 해서 들렸다, 라고 말했다.

그 남자는 한참 망설이더니 가능성을 담당 위원과 의논해서 알려주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젊은 여자애가 거침없이 묘지 이장건을 쉽게 얘기하는 것이 당돌하다고 생각했으나 그것 때문에 미국서 여기 까지 날아 왔으니 가볍게 거절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음, 그건 그렇고 자네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나?’ 한국 이름은 숙연이라고 하며 미국에서는 시드니(Sydney)라고 불러 주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래 진외당숙에게는 이장한다고 통기를 했나?’

‘아닙니다. 이제 막 부산에서 이곳으로 오는 길이라 아직..’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입을 연다. ‘우리 사학회는 고대 뿐만 아니라 근대의 장례문화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어. 박선생과 의논해서 결정할테니 며칠 기다려 보게.’ 라고 말했다. 그녀는 진외사촌의 거처도 알려주었다. 김복근은 역사학회에서 주로 대내외적인 일에 관여하며 몇몇의 전문위원과 자문하며 일정을 잡는 것처럼 보였다.

숙연은 다음날 부터 삼국유사의 ‘가락국’에 나오는 수로왕릉과 구산동의 왕비릉, 그리고 봉황동 유적지를 관찰하면서 시간을 보내었다. 고작 3, 400여년 남짓한 미국사와 비교해볼 때 수 천년 전의 패총무덤을 답사하면서 그녀는 고국의 먼 태고적 시대 집단 부족 국가를 상상하였다. 회현리 패총과 봉황대에서 출토된 토기와 각종 철기, 골각기 등을 살펴 보며 이들을 보내자 김복근 선생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박 선생으로 부터 쾌락을 받고 준비를 하고 있네. 미국에서 예까지 왔는데 아무 때나 파묘할 수 없어서 황도 길일을 짚어보니 ‘공망일(空亡日)’이 사흘 후에 있어서 그날 모시도록 의논이 되었대네. 나는 거기에 따르는 준비를 해야하니 며칠 더 기다리게나. 진외당숙에게도 연락이 닿아 당일 묘지에 올 것이라고 전갈이 왔어.’

파묘 날 숙연은 10시 전에 묘지로 갔다. 나지막한 묘지 위에 흰 천막이 쳐져 있었고 대 여섯 사람이 웅성이며 서성거렸는데 그중 반듯한 매무새를 한 70줄의 남자가 숙연에게 다가갔다. 머리는 세웠지만 만면에 웃음을 띄우고 다가와서 땅파는 일꾼이 아님을 즉각 알았다.

‘아... 네가 숙연이나? 나는 너의 아버지 외사촌되는 사람이다. 청춘에 세상을 하직한 망자와는 여러 번 말을 나누었지만 너는 지금 처음 보는구나..’

숙연은 허리를 구부리고 공손히 인사를 올렸다. 그녀는 오늘 처음 보는 이 친척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엉겨주춤 있었다. 그는 몇 번이나 종제가 아이 엠 에프 로 약국경영이 어려워 미국으로 떠났으며 질부와의 소식을 통해 이 곳 사정을 통기하였지, 라고 말했다. 일꾼들도 연장을 밀려놓고 흥미있게 숙연을 주시했다. 가랑비가 새벽에 흠뿌리다가 마지못해 걷어 있었고 찌뿌뚫하였다.

이윽고 닭장차와 길쭉한 검은 리무진이 도착해 이 곳으로 오고 있었다. 숙연은 내외업무를 담당하는 김복근 선생에게 알은 체를 하였다. 그는 같이 온 남자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이 분은 재래식 토장에 관해 식견이 높은 박 선생이며 역사 보존회의 임원이시다. 시신을 발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례라든가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박 선생과 의논하면 도움될 게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오늘 발굴절차와 영락원 화장에 대한 서류 숙연은 그를 따라 가지런히 새 관으로 뼈를 옮기던 중 박 선생은 고리에 연결된 물체를 들고 자세히 관찰했다. 줄은 몇 군데 떨어져 있었으며 희미한 빛을 발해 갈비뼈 속에 떨어져 있었다.

‘숙연...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목걸이 같기도 하고... 은 (銀) 목걸이.....?’

‘... 음.....’ 박 선생은 그것도 갈비뼈 사이로 넣고 돌은 골반, 다리, 발뼈를 가지런히 새 관으로 옮기는 작업을 끝내었다. 그는 삼베로 그 시체뼈를 통채로 싸서 미미라 모양으로 만들고 멧배 작업에 들어갔다.

삼베로 여섯 군데를 묶었다. 묶는 것도 물동이 밑에 까는 따방이처럼 등골게 만들어 양끝이 보이지 않게 질러 넣었다. 그는 보공으로 여분의 삼베를 사이에 끼워 넣었다. 숙연이 잔 일을 거들었으며 그에게서 땀 방울이 맺힌 물방울 몇이 숙연의 손등에 떨어진다. 관을 닫는다. 그는 관을 닫고는 장대에 관 밑에 삼베 띄를 세 개 넣어 관을 묶기 시작다가 ‘잠깐하고 허리를 편다. 그의 눈이 충혈되어 있다. 그는 홀연히 그의 뒷거리를 벗더니 관을 다시 열고 천근 위에 덮고나서 뚜껑을 닫았다. 숙연은 그를 쳐다 보지 않았다. ‘... 뒷거리는...?’ 하고 물었으나 그는 멍하니 저 먼 분산성에 시선을 주고 있다.

어떤 동행이지. 동행이 있어야 외롭지 않고 서로에게 따뜻한 연대감이라고 할까, 믿음이라고 할까 하는... 이젠 우리 살아있는 사람의 임무이기도 하지... 세상을 떠났게게 삼십과 솔질을 하여 관이 반 정도 들어나게 하였다. 그는 닭장차에서 가져온 작은 관과 보따리에 싼 물건들을 바로 옆에 놓았다. 작은 관의 뚜껑을 여니 거기에는 검은 칠을 한 얇은 오토나루 칠성판이 깔려있고 한지로 덮혀 있었다.

그는 숙연에게 눈길을 주었다. 유골 관을 열어아할 차례다. 숙연은 박 선생이 건네주는 흰 장갑을 끼었다. 그들은 각각 반대편에서 관의 이음새에 손을 대고 힘을 주어 관뚜껑을 열었다.

‘아.. 하고 숙연은 탄성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향나무 냄새와 누린내가 확 끼쳐옴과 동시에 두개골의 뿔뿔한 공간에서 무엇인가 번쩍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뉴욕주 ‘포트 에드워드’의 무덤에서도 인골들을 답사하고 확대경으로 비추어 소감을 적어내었으나 오늘 가족의 관을 열고 보는 순간 몸의 온 세포가 오그라지는 느낌을 받았다. 너무 놀라 엉겨주춤 숙연은 박 선생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토닥거렸다. 뼈는 전부 진한 갈색으로 변해있었고 하얀 이빨은 병충처림 둘러쳐져 있었으며 양쪽 팔은 골반 근처에 모아져 있었다.

그가 반절을 하고 먼저 두 상골을 숙연에게 건네니 그녀는 새 관에 모셨다. 그리고 팔 뼈와 갈비뼈를 하나씩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숙연은 그를 따라 가지런히 새 관으로 뼈를 옮기던 중 박 선생은 고리에 연결된 물체를 들고 자세히 관찰했다. 줄은 몇 군데 떨어져 있었으며 희미한 빛을 발해 갈비뼈 속에 떨어져 있었다.

‘숙연...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목걸이 같기도 하고... 은 (銀) 목걸이.....?’

‘... 음.....’ 박 선생은 그것도 갈비뼈 사이로 넣고 돌은 골반, 다리, 발뼈를 가지런히 새 관으로 옮기는 작업을 끝내었다. 그는 삼베로 그 시체뼈를 통채로 싸서 미미라 모양으로 만들고 멧배 작업에 들어갔다.

삼베로 여섯 군데를 묶었다. 묶는 것도 물동이 밑에 까는 따방이처럼 등골게 만들어 양끝이 보이지 않게 질러 넣었다. 그는 보공으로 여분의 삼베를 사이에 끼워 넣었다. 숙연이 잔 일을 거들었으며 그에게서 땀 방울이 맺힌 물방울 몇이 숙연의 손등에 떨어진다. 관을 닫는다. 그는 관을 닫고는 장대에 관 밑에 삼베 띄를 세 개 넣어 관을 묶기 시작다가 ‘잠깐하고 허리를 편다. 그의 눈이 충혈되어 있다. 그는 홀연히 그의 뒷거리를 벗더니 관을 다시 열고 천근 위에 덮고나서 뚜껑을 닫았다. 숙연은 그를 쳐다 보지 않았다. ‘... 뒷거리는...?’ 하고 물었으나 그는 멍하니 저 먼 분산성에 시선을 주고 있다.

어떤 동행이지. 동행이 있어야 외롭지 않고 서로에게 따뜻한 연대감이라고 할까, 믿음이라고 할까 하는... 이젠 우리 살아있는 사람의 임무이기도 하지... 세상을 떠났게게 삼십과 솔질을 하여 관이 반 정도 들어나게 하였다. 그는 닭장차에서 가져온 작은 관

다. 그들은 국화꽃이 그려진 리무진에 비상등을 켜고 경부 고속도로 방향으로 천천히 지속적인 속력으로 달렸다. 운전수를 빼면 숙연과 박 선생 뿐이다. 아니 오늘 귀빈으로 함께 가는 동행이 있다. 귀빈은 말이 없으나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여 있다. 질긴 사랑의 끈일 듯하다. 남희가 ‘선생님’이라는 꼬리표를 단 것이 벌써 4년였을 때다. 부산에서 초등학교 2년을 근무하다가 언니와 형부의 약국이 있는 김해로 다시 지원하여 또 2년여를 보내었다. 남희와 성수가 갑자기 친해진 것은 남희가 성수 선생의 학급을 도와준 것이 인연이 되었다. 둘다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을 각기 맡고 있었지만 성수 선생은 역사 보존회에 크게 관여하고 있어서 짬이 없어 환경미화나 아이들의 사소한 싸움에도 부담임이라는 직함으로 시시비비를 가려 성수 선생의 체면을 세워주었다. 그는 늘 남희 선생에게 빛진 느낌이 들었고 날이 갈수록 동료 교사에서 김정

처림 둘러쳐져 있었으며 양쪽 팔은 골반 근처에 모아져 있었다.

그가 반절을 하고 먼저 두 상골을 숙연에게 건네니 그녀는 새 관에 모셨다. 그리고 팔 뼈와 갈비뼈를 하나씩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숙연은 그를 따라 가지런히 새 관으로 뼈를 옮기던 중 박 선생은 고리에 연결된 물체를 들고 자세히 관찰했다. 줄은 몇 군데 떨어져 있었으며 희미한 빛을 발해 갈비뼈 속에 떨어져 있었다.

‘숙연...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목걸이 같기도 하고... 은 (銀) 목걸이.....?’

‘... 음.....’ 박 선생은 그것도 갈비뼈 사이로 넣고 돌은 골반, 다리, 발뼈를 가지런히 새 관으로 옮기는 작업을 끝내었다. 그는 삼베로 그 시체뼈를 통채로 싸서 미미라 모양으로 만들고 멧배 작업에 들어갔다.

삼베로 여섯 군데를 묶었다. 묶는 것도 물동이 밑에 까는 따방이처럼 등골게 만들어 양끝이 보이지 않게 질러 넣었다. 그는 보공으로 여분의 삼베를 사이에 끼워 넣었다. 숙연이 잔 일을 거들었으며 그에게서 땀 방울이 맺힌 물방울 몇이 숙연의 손등에 떨어진다. 관을 닫는다. 그는 관을 닫고는 장대에 관 밑에 삼베 띄를 세 개 넣어 관을 묶기 시작다가 ‘잠깐하고 허리를 편다. 그의 눈이 충혈되어 있다. 그는 홀연히 그의 뒷거리를 벗더니 관을 다시 열고 천근 위에 덮고나서 뚜껑을 닫았다. 숙연은 그를 쳐다 보지 않았다. ‘... 뒷거리는...?’ 하고 물었으나 그는 멍하니 저 먼 분산성에 시선을 주고 있다.

어떤 동행이지. 동행이 있어야 외롭지 않고 서로에게 따뜻한 연대감이라고 할까, 믿음이라고 할까 하는... 이젠 우리 살아있는 사람의 임무이기도 하지... 세상을 떠났게게 삼십과 솔질을 하여 관이 반 정도 들어나게 하였다. 그는 닭장차에서 가져온 작은 관

다. 그들은 국화꽃이 그려진 리무진에 비상등을 켜고 경부 고속도로 방향으로 천천히 지속적인 속력으로 달렸다. 운전수를 빼면 숙연과 박 선생 뿐이다. 아니 오늘 귀빈으로 함께 가는 동행이 있다. 귀빈은 말이 없으나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여 있다. 질긴 사랑의 끈일 듯하다. 남희가 ‘선생님’이라는 꼬리표를 단 것이 벌써 4년였을 때다. 부산에서 초등학교 2년을 근무하다가 언니와 형부의 약국이 있는 김해로 다시 지원하여 또 2년여를 보내었다. 남희와 성수가 갑자기 친해진 것은 남희가 성수 선생의 학급을 도와준 것이 인연이 되었다. 둘다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을 각기 맡고 있었지만 성수 선생은 역사 보존회에 크게 관여하고 있어서 짬이 없어 환경미화나 아이들의 사소한 싸움에도 부담임이라는 직함으로 시시비비를 가려 성수 선생의 체면을 세워주었다. 그는 늘 남희 선생에게 빛진 느낌이 들었고 날이 갈수록 동료 교사에서 김정

처림 둘러쳐져 있었으며 양쪽 팔은 골반 근처에 모아져 있었다.

그가 반절을 하고 먼저 두 상골을 숙연에게 건네니 그녀는 새 관에 모셨다. 그리고 팔 뼈와 갈비뼈를 하나씩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숙연은 그를 따라 가지런히 새 관으로 뼈를 옮기던 중 박 선생은 고리에 연결된 물체를 들고 자세히 관찰했다. 줄은 몇 군데 떨어져 있었으며 희미한 빛을 발해 갈비뼈 속에 떨어져 있었다.

‘숙연...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목걸이 같기도 하고... 은 (銀) 목걸이.....?’

‘... 음.....’ 박 선생은 그것도 갈비뼈 사이로 넣고 돌은 골반, 다리, 발뼈를 가지런히 새 관으로 옮기는 작업을 끝내었다. 그는 삼베로 그 시체뼈를 통채로 싸서 미미라 모양으로 만들고 멧배 작업에 들어갔다.

삼베로 여섯 군데를 묶었다. 묶는 것도 물동이 밑에 까는 따방이처럼 등골게 만들어 양끝이 보이지 않게 질러 넣었다. 그는 보공으로 여분의 삼베를 사이에 끼워 넣었다. 숙연이 잔 일을 거들었으며 그에게서 땀 방울이 맺힌 물방울 몇이 숙연의 손등에 떨어진다. 관을 닫는다. 그는 관을 닫고는 장대에 관 밑에 삼베 띄를 세 개 넣어 관을 묶기 시작다가 ‘잠깐하고 허리를 편다. 그의 눈이 충혈되어 있다. 그는 홀연히 그의 뒷거리를 벗더니 관을 다시 열고 천근 위에 덮고나서 뚜껑을 닫았다. 숙연은 그를 쳐다 보지 않았다. ‘... 뒷거리는...?’ 하고 물었으나 그는 멍하니 저 먼 분산성에 시선을 주고 있다.

어떤 동행이지. 동행이 있어야 외롭지 않고 서로에게 따뜻한 연대감이라고 할까, 믿음이라고 할까 하는... 이젠 우리 살아있는 사람의 임무이기도 하지... 세상을 떠났게게 삼십과 솔질을 하여 관이 반 정도 들어나게 하였다. 그는 닭장차에서 가져온 작은 관

다. 그들은 국화꽃이 그려진 리무진에 비상등을 켜고 경부 고속도로 방향으로 천천히 지속적인 속력으로 달렸다. 운전수를 빼면 숙연과 박 선생 뿐이다. 아니 오늘 귀빈으로 함께 가는 동행이 있다. 귀빈은 말이 없으나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여 있다. 질긴 사랑의 끈일 듯하다. 남희가 ‘선생님’이라는 꼬리표를 단 것이 벌써 4년였을 때다. 부산에서 초등학교 2년을 근무하다가 언니와 형부의 약국이 있는 김해로 다시 지원하여 또 2년여를 보내었다. 남희와 성수가 갑자기 친해진 것은 남희가 성수 선생의 학급을 도와준 것이 인연이 되었다. 둘다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을 각기 맡고 있었지만 성수 선생은 역사 보존회에 크게 관여하고 있어서 짬이 없어 환경미화나 아이들의 사소한 싸움에도 부담임이라는 직함으로 시시비비를 가려 성수 선생의 체면을 세워주었다. 그는 늘 남희 선생에게 빛진 느낌이 들었고 날이 갈수록 동료 교사에서 김정

처림 둘러쳐져 있었으며 양쪽 팔은 골반 근처에 모아져 있었다.

그가 반절을 하고 먼저 두 상골을 숙연에게 건네니 그녀는 새 관에 모셨다. 그리고 팔 뼈와 갈비뼈를 하나씩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숙연은 그를 따라 가지런히 새 관으로 뼈를 옮기던 중 박 선생은 고리에 연결된 물체를 들고 자세히 관찰했다. 줄은 몇 군데 떨어져 있었으며 희미한 빛을 발해 갈비뼈 속에 떨어져 있었다.

다. 그들은 손을 잡고 한참 동안 그대로 서있다가 주위가 이속해서야 내려와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10월 말경 성수는 부산 을숙도에서 회화사업을 하고 있던 고교 동창생으로 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다. 결혼을 일찍한 친구는 처가가 있는 서울에 사고가 있어서 가야하니 성수에게 사흘간 사업소를 맡아 달라는 것이었다. 그냥 꽤 너른 농가를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성수는 겨울 방학 때 주로 거기 가서 온실 재배와 유리관의 온도 조절, 수경 재배의 잔 일을 거들어 주었는데 이번에도 채근을 하여 금요 수업을 마치고 급히 떠났다. 가면서 그는 남희를 만나 전후 사정을 얘기하고 내일 을숙도 하국둑 전망대에서 만났으면 하는 의견을 내었다.

다음날 남희는 언니 남심에게 성수 선생과 함께 을숙도 생태공원을 견학한다고 말하고 부산으로 가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하단에서 내렸다. 거기서 다시 버스를 타서 전망대

가 있는 곳으로 갔다. 전망대 꼭대기에서는 낙동강 하국둑과 을숙도 공원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었다. 그곳에선 저 아래 갈매기가 조용히 앉아 있는 것과 같이 꼼짝없이 미소를 띠고 있는 성수를 발견했다. 남희는 얇은 분홍색 스카프와 하늘색의 자켓 굵은 구두를 신고 있는 단순한 차림새였지만 성수에게겐 천상의 여인처럼 보였다.

‘오늘 남희 씨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 낙동강물에 뛰어들어 세상을 하직할려 했는데 이렇게 나타났으니 남희 씨는 오늘부로 생명을 하나 구한 셈이 됩시다.’

‘어머, 거짓말을 쉽게하면 코가 한 자나 커진다는 미국 동화 모르세요?’

남희가 웃으면서 힐난하는 소리는 성수에게 토프르 구르는

옥소리처럼 들렸고, 그들은 여러 관광객들과 이곳저곳을 두리번 거리며 걷기 시작했다. ‘예코 센터에서 철새 공원 입구로 들어가 는 길에 들어서면서 그들은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흐뭇했다. 공원 아랫쪽 단단 탐조대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습지와 갈대밭이 펼쳐져 있었으며, 저쪽에는 물억새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주저랑 건너편인 ‘피크닉’ 광장에 들어서니 눈앞에 펼쳐진 분홍 물결에 남희는 그만 압도당했다.

바로 핑크 ‘물리’ 군락지다. 핑크‘물리’는 미국 중서부의 따뜻한 평야지대가 원산지로 알려져 있는데, 일명 분홍억새, 서양억새로 불리기도 한다.

그들은 육교를 건너 식물과 대형 온실이 있는 ‘낙동 화원’으로 돌아왔다. 그 많은 관광객들이 절멸처림 빠져버린 외곽은 차츰 어둡이 짙어지고 별들이 낙동강 물 위에 싸라기처럼 흠뿌리고 있었다. 그 별들이 을숙도의 유래를 풀어낸다. 을숙(乙淑), 이 여자애의 거처는 낙동강 하구의 천혜의 지형이다.

<다음호에 계속>

<미주 41회 한국일보 문예공모 소설 부문 기작>



www.snuu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3백만불 모금 캠페인

후원에 주신 동문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내에서 최초의 면세혜택을 승인받은, 26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총 모금액 TOTAL

# \$628,918

<모교발전기금포함>

종신이사 (\$3,000) 명단

골드 이사 \$10,000 이상 실버 이사 \$6,000 이상

남가주 강신용(사대 73) 권기홍(의대 60) 광웅길(문리 59)김경숙(간호 68) 김동훈(의대 71) 김보연(간호 63)김성호(법대 64)김재영(농대 62) 노명호(공대 61) 노재성(의대 58) 박명근(상대 63) 박윤수(문리 48) 박종수(수의 58) 박원준(공대 53) 방명진(공대 73) 서동영(사대 60) 서영석(의대 55) 서지원(공대 69) 심상은(상대 54) 심화섭(약대 61) 오재인(치대 33) 오홍조(치대 56) 이병준(상대 55) 이세열(사대 57) 이종도(공대 66) 이창광(상대 61) 이홍규(의대 58) 임낙균(약대 64) 임용오(의대 57) 전희택(의대 60) 정동구(공대 57) 정임현(간호 72) 정재훈(공대 64) 제영혜(가정 71) 조용원(문리 66) 차민영(의대 76) 차중환(사대 54) 하기환(공대 66) 한귀희(미대 68) 한홍택(공대 58) 박창규(약대 59) 조한원(의대 57) **북가주** 김정화(응대 56) 손석보(공대 68) 민병곤(공대 65) 전혜경(문리 66) 차민영(의대 76) 차중환(의대 58) **뉴욕** 김광호(문리 62) 신용남(농대 70) **오인석(법대 58) (S)** 윤정욱(약대 50) 이기영(농대 70) 이진구(농대 60) 이재덕(법대 60) 이준행(공대 48) 추재욱(의대 57) 고애자(응대 57) 강애드워드(사대 61) 최영태(문리 67) 최수용(상대 55) **워싱턴 DC** 강연식(사대 58) 권기현(사대 53) 류재홍(법대 60) 민홍기(문리 61) 방은호(약대 43) 오인환(문리 63) 최지원(의대 61) **워싱턴주** 이희백(의대 55) **시카고** 남상용(공대 52) 심상구(상대 63) **이용락(공대 48) (S)** 이재희(치대 67) 장윤일(공대 60) 정 태(의대 57) 최의필(의대 53) **미네소타** 김관식(공대 61) 남세현(공대 67) 변우진(인문 81) 조형준(문리 62) 황효숙(사대 65) **플로리다** 김중권(의대 63) **네바다** 정상진(상대 59)(G) **중부텍사스** 이광연(공대 60) **조지아** **주중광(약대 60)P** 허지영(문리 66)G **하트랜드** 김경숙(가정 70) 김명자(문리 62) 이교락(의대 53) 이상강(의대 70) **휴스턴** 박태우(공대 64) 조시호(문리 59) **[종신 이사 구분]** (D)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P)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G) 골드 이사 \$10,000 이상 (S) 실버 이사 \$5,000 이상 **[카네기 음악회 순수익금]** (6/22/19) \$6,637.55

### 일반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크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종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동창회의 재정자립을 위해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 세제 혜택 및 기부안내

- 1)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1994년 12 델라웨어주에 비영리 법인 (IRC 501(c)(3))으로 등록되었으며
- 2) 미 연방국세청(IRS)로부터 미주 각지역 동창회를 대표하는 단체 면세승인 (Group Tax Exempt) 번호 3784를 취득하여 여러분의 후원금은 면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또한 연방국세청법(IRC 2055, 2016 and 2522)에 따라 각종자산에 대한 유산 (Bequests, Legacies) 유증(Divises), 양도(Trensfers) 및 기증(Gifts)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 4) 미주 동창회 재정자립을 위한 3백만불 모금운동에 참여하실 분은 동창회로 문의해주시고, 세금공제 혜택을 위한 법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SNUAA-USA / E. Peter Shin, ESQ.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UL-2, Flushing, NY 11358  
T 718-463-3131 E-mail: news@snuua.org

www.snuua.org

## 종신 이사비 (\$3,000 이상 / 120명)

(P) 플래티넘 이사 주중광 (약대 60)	박윤수 (문리 48) 박종수 (수의 58) 방명진 (공대 73) 서동영 (사대 60) 서영석 (의대 55) 서지원 (공대 69) 심상은 (상대 54) 심화섭 (약대 61) 오재인 (치대 33) 오홍조 (치대 56) 이병준 (상대 55) 이세열 (사대 57) 이종도 (공대 66) 이창광 (상대 61) 이홍규 (의대 58) (S) 임낙균 (약대 64) 임용오 (의대 57) 전희택 (의대 60) 정동구 (공대 57) 정임현 (간호 72) 정재훈 (공대 64) 제영혜 (가정 71) 조용원 (문리 66) 차민영 (의대 76) 차중환 (사대 54) 하기환 (공대 66) 한귀희 (미대 68) (S)	한홍택 (공대 60) 한효동 (공대 58) <b>북가주</b> 김정희 (응대 56) 민병곤 (공대 65) 손석보 (공대 68) 전혜경 (문리 67) <b>뉴욕</b> 김광호 (문리 62) 김승호 (공대 71) 석창호 (의대 66) 신용남 (농대 70) <b>오인석 (법대 58) (G)</b> 윤정욱 (약대 50) 이기영 (농대 70) 이진구 (농대 60) 이재덕 (법대 60) 이준행 (공대 48) 추재욱 (의대 57) 고애자 (응대 57) 강 애드워드(사대 60) 이재광 (상대 61) 최영태 (문리 67) 최수용 (상대 55) 김중윤 (사대 51)	윤종숙 (약대 66) 김해암 (의대 52) <b>뉴잉글랜드</b> 고일석 (보건 69) 김문소 (수의 61) 김용구 (공대 66) <b>박경민 (의대 53)</b> 박영철 (농대 64) 오세경 (약대 61) <b>윤상래 (수의 62) (G)</b> 윤선홍 (치대 64) 정선주 (간호 68) 정정욱 (의대 60) 정태영 (문리 71) 홍지복 (간호 70) <b>워싱턴 DC</b> 강연식 (사대 58) 권기현 (사대 53) 류재홍 (법대 60) 민홍기 (문리 61) 방은호 (약대 43) 오인환 (문리 63) 최지원 (의대 61)	워싱턴주 이희백 (의대 55) <b>시카고</b> 남상용 (공대 52) 심상구 (상대 63) <b>이용락 (공대 48) (S)</b> 이재희 (치대 67) 장윤일 (공대 60) 정 태 (의대 57) 최의필 (의대 53) <b>루이지애나</b> <b>강영빈 (문리 58) (S)</b> <b>미네소타</b> 김관식 (공대 61) 남세현 (공대 67) 변우진 (인문 81) 조형준 (문리 62) 황효숙 (사대 65) <b>오하이오</b> 김용현 (경원 66)	네바다 정상진(상대 59)(G) <b>중부텍사스</b> 이광연 (공대 60) <b>조지아</b> <b>주중광 (약대 60)P</b> 허지영 (문리 66)G <b>필라델피아</b> 고병은 (문리 55) 서중민 (공대 64) 손재욱 (가정 77) 이만택 (의대 52) 주기목 (수의 68) 신의석 (공대 53) <b>플로리다</b> 김중권 (의대 63) <b>[종신 이사 구분]</b> (D)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P)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G) 골드 이사 \$10,000 이상 (S) 실버 이사 \$5,000 이상 <b>[카네기 음악회 순수익금]</b> (6/22/19) \$6,637.55
-------------------------	---	---	--	--	---

2월 후원자 감사합니다

\*종신이사

김중윤(사대 51)

윤종숙(약대 61)

김해암(의대 52)

신의석(공대 53)

신상균(의대 52)

권영국(상대 60)

김정화(응대 56)

김성열(치대 61)

\*\$500이상 후원자

##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후원금 (1,2차 회기: 2019. 7. 1 ~ 2021. 6. 30)

전회장단 이월금 (6/23) 30,000 (10/31) 27,365.02	광고비 이승훈(자연나라) 2,400 (12/18/20) 3,600 김권식(EVS) 1,500 (10/18/20) 1,500 이병준(Seah) 1,500 (2/11/21) 1,240 키스프로덕트 1,500 (1/8/20) 1,500 (1/25/21) 1,500 서울언어연구원 1,483 미래에셋 (~10/2019) 1,200 SEOUL MEDICAL GROUP 1,000 (10/13/20) 1,000 TIMOTHY HAAS & ASS.손재욱 1,000 한남체인 1,000 (10/05/20) 1,000 뉴밀레니엄 뱅크 1,000 듀오(10/24/19) 400 서동영 (사대 60) 240 석창호 (의대 66) 240 손재욱 (가정 77) 240 신중국 (수의 76) 240 엄달용 (공대 69) 240 유창호 (약대 74) 240 이경림 (상대 64) 240 이병준 (상대 55) 240 이준영 (치대 74) 240 이종모 (간호 69) 240 이창석 (의대 72) 240 김원철 (농대 70) 240 열동해 (농대 74) 240 김원탁 (공대 65) 240 이창도 (공대 66) 240 차민영 (의대 76) 240 최무식 (약대 66) 240 C THOMAS PARK PEDIATRICS 240	이소희 (의대 61) 250 임창희 (공대 73) 200 김순자 (치대 57) 100 김정화 (응대 56) 25 박수영 (농대 53) 25 <b>모교발전기금</b> 남세현 (공대 67) 2,000 황효숙 (사대 65) 1,000 윤우용 (공대 63) 1,000 황효숙 (사대 65) 1,000 박원준 (공대 53) 500 오인환 (문리 63) 300 박원준 (공대 53) 300 최재귀 (미대 63) 300 심상은 (상대 54) 200 김영자 (간호 53) 100 권철수 (의대 70) 100 오석일 (의대 64) 100 윤인숙 (간호 63) 50 구철희 (의대 78) 25 <b>장학금</b> 고윤낙수(의대 60) 2,000 박원준 (공대 53) 500 이용락 (공대 48) 500 신동현 (농대 49) 500 전상욱 (사대 52) 500 조형원 (약대 50) 500 황효숙 (사대 65) 500 정진수 (공대 56) 425 임필승 (의대 54) 400 전경배 (의대 75) 350 오인환 (문리 63) 200 최준권 (문리 59) 200	최선희 (문리 69) 125 김현주 (문리 61) 100 서준호 (공대 74) 100 이원섭 (농대 77) 100 유기정 (간호 72) 100 황현상 (의대 55) 100 문성인 (공대 88) 100 한성수 (의대 54) 50 이규만 (문리 61) 25 <b>브레인 네트워크 후원금</b> 황효숙 (사대 65) 500 한재은 (의대 59) 300 전병남 (상대 73) 200 오인환 (문리 63) 200 이재진 (문리 85) 100 이범식 (공대 61) 50 <b>지부 부담금 (2019/7/1~2020/6/30)</b> 뉴욕(6/30/2020) 3,000 남가주(2/21/20) 3,000 시카고(3/19/20) 2,400 워싱턴 D.C.(1/17/20) 2,000 필라델피아(3/25/20) 1,500 북가주(6/2/20) 1,200 뉴잉글랜드(4/16/20) 1,000 미네소타(3/13/20) 600 워싱턴주(3/25/20) 600 하트랜드(5/12/20) 600 북텍사스(5/12/20) 550 샌디에고(6/2/20) 550 조지아(3/25/20) 400 하와이(3/4/20) 300 오레곤(5/5/20) 300	오하이오(5/12/20) 300 조지아(5/29/20) 200 테네시(5/5/20) 200 커네티컷(5/6/20) 200 알라스카(5/12/20) 200 플로리다(5/12/20) 200 <b>특별후원금</b> 정태영(문리 71) 200 주기목(수의대 68) 200 조정현(수의대 58) 125 <b>28차 평의회회 후원금</b> 서울 총동창회 3,000 김동희 (공대 66) 100 박광일 (농대 69) 200 송용길 (신문 67) 150 유성은 (의대 88) 1,300 유시영 (문리 68) 300 윤봉수 (간호 69) 100 한태진 (의대 58) 500 <b>29차 평의회회 후원금</b> 정재훈(공대 64) 2,000 박종수(수의대 58) 1,000 신용남(농대 70) 1,000 노명호(공대 61) 500 박광일(농대 69) 500 윤상래(수의대 62) 500 지흥민(수의대 61) 500 광선섭(공대 61) 300 김중윤(사범 51) 300	연봉원(문리 61) 300 오인환(문리 63) 300 박상원(응대 69) 220 오인환(문리 63) 200 민병갑(문리 63) 200 백 순(법대 58) 200 백옥자(응대 71) 200 손재욱(가정 77) 200 이강원(공대 66) 200 정태영(문리 71) 200 주기목(수의대 68) 200 조정현(수의대 58) 125 지흥민(수의대 61) 100 광선희(문리 52) 100 박재은(미대 63) 100 오 성(법대 76) 100 우규환(사대 60) 100 이성숙(공대 56) 100 장수영(미대 70) 100 최화연(응대 64) 100 최형무(법대 68) 100 서울 총동창회 5,000 <b>카네기음악회 후원금</b> 신용남 \$16,947.74 서울 총동창회 3,000 뉴욕지역 동창회 2,000 뉴욕지역 골든클럽 2,000 이만택 (미주재단) 4,500 강애드 (사대 60) 500 광선섭 (공대 61) 300 권문용 (미대 61) 200 김광호 (문리 62) 1,000 김승호 (공대 72) 2,000 김중윤 (사대 53) 300
--	---	--	---	---	---



김해암 (의대 52)	1,000	<b>일반후원금</b>	이수영 (약대 92)	100	허병렬 (사대 42)	100	<b>미네소타</b>	김관식( 공대 61)	500	<b>일리노이</b>	최의필 (의대 53)	525
노명호 (공대 61)	1,000		박서규 (법대 56)	100	이상원	25		김관식( 공대 61)	500		최의필 (의대 53)	525
노용면 (의대 48)	100	<b>남가주</b>	변승지	100	민준기(공대 59)	25	송세진 (치대 78)	200	송기로 (약대 57)	200	최영우 (법대 69)	50
민준기 (공대 59)	300		정재훈 (공대 64)	3,370	송영국 (인문 81)	100	문성인 (공대 88)	50	송기로 (약대 57)	200	최왕욱 (공대 69)	200
박영철 (농대 64)	2,000	이효표 (의대 58)	2,000	위종민 (공대 64)	100	차재호 (농대 84)	50	송기인 (의대 60)	200	최왕욱 (공대 69)	200	
정선주 (간호 68)	1,000	노명호 (공대 61)	1,000	전원일 (의대 77)	100			송근수 (간호 66)	200	최영우 (간호 69)	200	
박윤수 (문리 48)	1,200	박중수 (수의대 78)	1,000					전동우 (공대 63)	200	안태홍 (상대 65)	200	
박중수 (수의 58)	1,000	이승훈 (상대 74)	1,000			<b>뉴잉글랜드</b>	박영철/정선주 (농대 64)(간호 68)	2,000	송윤길 (신문 69)	200	양거영 (의대 48)	200
박희병 (치대 63)	200	하기환 (공대 66)	1,000			<b>뉴욕</b>	한광수 (의대 57)	700	송영우 (사대 64)	200	양명자 (사대 63)	200
백승원 (의대 73)	1,500	양서명 (보건 68)	850				김기현 (문리 52)	200	송철섭 (회공 48)	200	연봉원 (문리 61)	300
석창호 (의대 66)	400	오영숙 (간호)	500						신두식 (의대 58)	200	오용환 (약대 68)	200
선중철 (의대 57)	200	이명선 (상대 58)	500			<b>워싱턴주</b>			신응남 (농대 70)	200	오홍환 (의대 66)	200
성기로 (사대 57)	200	김정희 (응대 56)	500			정영자 (사범 56)	200		신정자 (간호 62)	200	유은희 (미대 68)	200
송재욱 (가정 77)	500	이창선 (법대 57)	500			김성열 (치대 61)	50		안태홍 (상대 65)	200	유영은 (의대 51)	200
송용길 (대원 69)	500	임낙균 (약대 64)	500						안태홍 (상대 65)	200	유은희 (미대 68)	200
송학린 (법대 59)	650	정 신 (보건 92)	500			<b>플로리다</b>	김중권 (의대 63)	200	안태홍 (상대 65)	200	유은희 (미대 68)	200
신용남 (농대 70)	2,000	정균희 (의대 64)	500			김중권 (의대 63)	200		안태홍 (상대 65)	200	유은희 (미대 68)	200
연봉원 (문리 61)	300	백옥자 (응대 71)	200			김성열 (치대 61)	200		안태홍 (상대 65)	200	유은희 (미대 68)	200
윤상래 (수의 62)	1,000	이법식 (공대 61)	400						안태홍 (상대 65)	200	유은희 (미대 68)	200
윤은상 (상대 66)	80	심상은 (상대 54)	300			<b>시카고</b>	이용락 (공대 48)	500	안태홍 (상대 65)	200	유은희 (미대 68)	200
이병준 (상대 55)	1,000	곽중길 (문리 59)	200			이용락 (공대 48)	500		안태홍 (상대 65)	200	유은희 (미대 68)	200
이상무 (의대 62)	100	김은용 (공대 62)	200			강영국 (수의 67)	200		안태홍 (상대 65)	200	유은희 (미대 68)	200
이수호 (보건 69)	200	김동석 (응대 64)	200			김연화 (응대 68)	200		안태홍 (상대 65)	200	유은희 (미대 68)	200
이용락 (공대 48)	650	김태환 (의대 58)	200			이내원 (사대 58)	500		안태홍 (상대 65)	200	유은희 (미대 68)	200
이준행 (공대 48)	1,000	류재은 (미대 71)	200			노상문 (인문 82)	450		안태홍 (상대 65)	200	유은희 (미대 68)	200
이충무 (의대 69)	500	나두섭 (의대 66)	200			오동환 (의대 65)	400		안태홍 (상대 65)	200	유은희 (미대 68)	200
정정욱 (의대 60)	200	정인환 (법대 54)	200			김광결 (약대 56)	350		안태홍 (상대 65)	200	유은희 (미대 68)	200
조남천 (사대 59)	60	전영선 (공대)	200			박종숙 (약대 69)	200		안태홍 (상대 65)	200	유은희 (미대 68)	200
조남훈 (사대 66)	500	김경수 (치대 58)	200			권철수 (의대 70)	200		안태홍 (상대 65)	200	유은희 (미대 68)	200
조상근 (법대 69)	1,000	김기수 (공대 74)	200			권철수 (의대 70)	200		안태홍 (상대 65)	200	유은희 (미대 68)	200
최경석 (사대 80)	650	김중훈	200			권기현 (사범 53)	200		안태홍 (상대 65)	200	유은희 (미대 68)	200
최수용 (상대 55)	500	심상은 (상대 54)	200			김중주 (약대 68)	200		안태홍 (상대 65)	200	유은희 (미대 68)	200
최철용 (농대 57)	500	황만익 (사대 59)	400			김일중 (의대 69)	200		안태홍 (상대 65)	200	유은희 (미대 68)	200
최한용 (농대 58)	1,000	영동해 (농대 74)	200			김정화 (응대 56)	250		안태홍 (상대 65)	200	유은희 (미대 68)	200
최형무 (법대 69)	200	임춘수 (의대 57)	200			<b>미시간</b>	김정화 (응대 56)	250	안태홍 (상대 65)	200	유은희 (미대 68)	200
주재욱 (의대 57)	1,000	유재환 (상대 67)	200			김정화 (응대 56)	250		안태홍 (상대 65)	200	유은희 (미대 68)	200
한경수 (문리 57)	300	박민식 (수의대 65)	200			<b>아리조나</b>	박양환 (약대 48)	200	안태홍 (상대 65)	200	유은희 (미대 68)	200
한귀희 (미대 68)	1,400	박양재 (약대 48)	200			박양환 (약대 48)	200		안태홍 (상대 65)	200	유은희 (미대 68)	200
한영수 (의대 61)	200	김영순 (응대 59)	200			<b>오레곤</b>	김상순 (상대 67)	500	안태홍 (상대 65)	200	유은희 (미대 68)	200
홍중만 (공대 64)	300	김동석 (응대 64)	200			김상순 (상대 67)	500		안태홍 (상대 65)	200	유은희 (미대 68)	200
홍지복 (간호 70)	500	김동철 (공대 55)	200			박희진 (농대 78)	200		안태홍 (상대 65)	200	유은희 (미대 68)	200
DOUBLE TREE (최용렬)	500	전경철 (공대 55)	200			한영준 (사대 60)	100		안태홍 (상대 65)	200	유은희 (미대 68)	200
		최용환 (공대 57)	200			<b>올라호마</b>	김경숙(가정 70)	200	안태홍 (상대 65)	200	유은희 (미대 68)	200
		이윤순(의대 65)	200			김경숙(가정 70)	200		안태홍 (상대 65)	200	유은희 (미대 68)	200
		신동국 (수의대 76)	150			이상강(의대 70)	200		안태홍 (상대 65)	200	유은희 (미대 68)	200
		김상찬(문리 65)	100			<b>오클라호마</b>	김경숙(가정 70)	200	안태홍 (상대 65)	200	유은희 (미대 68)	200
		허선행 (의대 38)	200			김경숙(가정 70)	200		안태홍 (상대 65)	200	유은희 (미대 68)	200
		고김용삼 (응대)	100			이상강(의대 70)	200		안태홍 (상대 65)	200	유은희 (미대 68)	200
		이승희 (간호 47)	100			<b>오하이오</b>	성홍환 (수의대 75)	300	안태홍 (상대 65)	200	유은희 (미대 68)	200
						성홍환 (수의대 75)	300		안태홍 (상대 65)	200	유은희 (미대 68)	200

동창회비 (2차 회기: 2020. 7. 1 ~ 2021. 6. 30)

김병완 (공대 58)	김화섭(의대 55)*	배윤숙 (미대 65)	윤희성 (치대 65)*	이중희 (공대 53)	정병혁 (농대 70)	홍선례 (응대 70)	박영욱 (사범 55)*
김병철 (농대 58)	나두섭 (의대 66)	백효식 (문리 52)*	육태식 (의대 61)*	이창선 (법대 57)	정예현 (상대 63)*	홍선선(약대 72)	박성수(공대 59)*
김상찬 (문리 65)	나민주 (응대 65)*	백옥자 (응대 71)	이강훈 (치대 65)	이정선 (문리 55)	정진우 (의대 66)	홍성애 (간호 60)	박정규 (간호 56)
김성철 (법대 54)	노명호 (공대 61)*	백혜란 (미대 70)	이건일 (의대 62)	이정광 (상대 61)	정철룡 (의대 55)	황건홍(공대 55)	박종성 (법대 73)
김석홍 (법대 59)	류정순 (가정 69)*	방정자 (간호 61)	이동호 (법대 58)	이현찬 (치대 75)	정형민 (문리 71)	황선우 (간호 69)	박종영 (상대 52)
김성호 (법대 64)*	문경호 (문리 59)	서동영 (사대 60)	이명선 (상대 58)	이 호(응대 92)*	정연용 (상대 63)	황윤석 (상대 66)	안 호(응대 95)
김성환(의대 65)*	문덕수 (공대 73)	서영석 (문리 61)	이명선 (상대 58)	이호진 (간호 74)	정재화 (상대 59)	홍수용(의대 59)	안호상 (문리 58)
김준자 (간호 69)*	김영도 (공대 67)*	서동영 (사대 60)	이명선 (상대 58)	이호진 (간호 74)	정인환 (법대 54)		양서명 (보건 68)
강희창 (공대 57)	김옥권 (미대 76)	서동영 (사대 60)	이명선 (상대 58)	이희충 (공대 68)	정인환 (법대 54)		오형권
강종재 (상대 53)	김옥희 (의대 57)	서동영 (사대 60)	이명선 (상대 58)	이동규 (미대 57)*	정인환 (법대 54)		온기철 (의대 65)
고석규(치대 65)	김영도 (공대 67)*	서동영 (사대 60)	이명선 (상대 58)	이문민 (상대 58)*	정인환 (법대 54)		유두영 (공대 55)
고석원 (문리 50)	김영희 (상대 56)	서동영 (사대 60)	이명선 (상대 58)	이문민 (상대 58)*	정인환 (법대 54)		위창호 (의대 73)*
권기환 (의대 78)	김인숙 (간호 70)	서동영 (사대 60)	이명선 (상대 58)	이문민 (상대 58)*	정인환 (법대 54)		이강우 (문리 59)
권기상 (경영 72)	김일영 (의대 65)*	서동영 (사대 60)	이명선 (상대 58)	이문민 (상대 58)*	정인환 (법대 54)		이승희 (간호)
권기홍 (의대 60)	김용재 (문리 61)	서동영 (사대 60)	이명선 (상대 58)	이문민 (상대 58)*	정인환 (법대 54)		이재성 (공대 65)
김강수 (문리 59)*	김원탁(공대 65)	서동영 (사대 60)	이명선 (상대 58)	이문민 (상대 58)*	정인환 (법대 54)		이정남 (공대 63)
김경수(치대 58)*	김자성(의대 79)*	서동영 (사대 60)	이명선 (상대 58)	이문민 (상대 58)*	정인환 (법대 54)		이민영 (문리 57)*
김광은 (응대 56)	김재영 (농대 62)	서동영 (사대 60)	이명선 (상대 58)	이문민 (상대 58)*	정인환 (법대 54)		이민영 (문리 57)*
김경옥 (미대 61)	김정호 (의대 63)*	서동영 (사대 60)	이명선 (상대 58)	이문민 (상대 58)*	정인환 (법대 54)		이민영 (문리 57)*
김건진 (문리 62)	김정순 (간호 70)	서동영 (사대 60)	이명선 (상대 58)	이문민 (상대 58)*	정인환 (법대 54)		이민영 (문리 57)*
김경수(사대 55)	김재홍 (치대 68)	서동영 (사대 60)	이명선 (상대 58)	이문민 (상대 58)*	정인환 (법대 54)		이민영 (문리 57)*
김경순 (행정 82)	김종복 (법대 58)	서동영 (사대 60)	이명선 (상대 58)	이문민 (상대 58)*	정인환 (법대 54)		이민영 (문리 57)*
김경애 (미대 63)	김순표(간호 61)	서동영 (사대 60)	이명선 (상대 58)	이문민 (상대 58)*	정인환 (법대 54)		이민영 (문리 57)*
김남영 (공대 53)*	김준일 (응대 62)*	서동영 (사대 60)	이명선 (상대 58)	이문민 (상대 58)*	정인환 (법대 54)		이민영 (문리 57)*
김동산 (법대 59)*	김태윤 (법대 53)*	서동영 (사대 60)	이명선 (상대 58)	이문민 (상대 58)*	정인환 (법대 54)		이민영 (문리 57)*
김동석 (응대 64)	김태환 (의대 58)	서동영 (사대 60)	이명선 (상대 58)	이문민 (상대 58)*	정인환 (법대 54)		이민영 (문리 57)*
김문엽 (농대 83)	김창무 (응대 53)	서동영 (사대 60)	이명선 (상대 58)	이문민 (상대 58)*	정인환 (법대 54)		이민영 (문리 57)*
김명숙 (농대 58)	김학철 (의대 55)	서동영 (사대 60)	이명선 (상대 58)	이문민 (상대 58)*	정인환 (법대 54)		이민영 (문리 57)*
김병연 (공대 68)	김현순 (간호 69)*	서동영 (사대 60)	이명선 (상대 58)	이문민 (상대 58)*	정인환 (법대 54)		이민영 (문리 57)*

정지선 (상대 58)	변건용(공대 65)	최수용 (상대 55)	송세진 (치대 78)	이재희 (치대 67)	김민정 (문리 59)	이길송 (상대 57)*	김경숙 (문리 59)*	라칸국(의대 57)*
정준임 (간호 67)	석창호 (의대 66)	최영태 (문리 67)	송창원 (문리 53)	이종일 (의대 65)	김용덕 (의대 53)	이순모 (공대 56)*	김정숙 (사대 53)*	유시영 (문리 68)
정해창 (치대 67)	선중철 (의대 57)	최정용 (사범 63)	양태중 (인문 89)	이종일 (농대 57)	김찬규 (공대 54)	이원철 (농대 77)	김영우 (공대 55)	서태근 (문리 55)
주영욱 (사대 55)	송기로 (약대 57)	최한용 (농대 58)	이창재 (문리 56)	이춘우 (치대 58)	김동작 (문리 61)	이희백 (의대 55)	김정현 (공대 68)	주공로 (공대 68)
최경선 (농대 65)	송기인 (의대 60)	최형무 (법대 69)	왕규현 (의대 56)	최영우 (법대 69)	김지수 (의대 62)	김재술 (약대 58)	김재술 (약대 58)	최창승(의대 52)*
최왕욱 (공대 69)	송규성(사범 61)*	최왕욱 (공대 69)	조성규 (의대 59)	최왕욱 (공대 69)	남춘일 (사대 69)	정영자 (사범 56)*	김주진 (법대 54)*	홍성휘 (공대 56)
최영우 (간호 69)	송근수 (간호 66)	최영우 (간호 69)	주한수 (수의대62)	최영우 (간호 69)	노상문 (인문 82)	최준한 (농대 58)	김진우 (공대 62)	
천동우 (공대 63)	송기인 (의대 60)	천동우 (공대 63)	차재호 (농대 84)*	송재현 (의대 46)	박은희 (미대 68)	홍영욱 (응대 54)	김현영 (수의 58)	
탁은숙 (문리 54)*	송윤길 (신문 69)	송윤길 (신문 69)		신석균 (문리 54)	박인영 (의대 69)			
한상봉 (수의 67)	송영우 (사대 64)	송영우 (사대 64)		장세균 (의대 57)	박일영 (문리 59)			
황만익 (사대 59)	송철섭 (회공 48)	송철섭 (회공 48)		장윤일 (공대 60)	박홍우 (문리 61)			
홍경삼 (문리 61)	신두식 (의대 58)	신두식 (의대 58)		정승규 (공대 60)	변만식(사대 49)			
홍병익 (공대 68)	신응남 (농대 70)	신응남 (농대 70)		조대현(공대 57)	백순 (법대 58)			
황규혁 (공대 50)	신정자 (간호 62)	신정자 (간호 62)		조은희 (의대 46)	서윤석 (의대 62)			
황화희 (의대 65)	안태홍 (상대 65)	안태홍 (상대 65)		조봉관(공대 64)	김성식 (의대 62)			
	양거영 (의대 48)	양거영 (의대 48)		조용호 (문리 55)	서휘열 (의대 55)*			
	양명자 (사대 63)	양명자 (사대 63)	</					



<b>남가주   CA</b>
<b>공인회계사</b>
<b>Kyung Moo Kim CPA &amp; Accounting Corp.</b>
<b>김경무 (공대 69)</b>
T: 213-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 LA, CA 90010
<b>AAMKO Consulting Co.</b>
<b>강신용 (사대 73) 공인회계사</b>
<b>T: 213-380-3801</b>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b>이강원 공인회계사</b>
<b>이강원 (인문대 76)</b>
<b>T: 213-387-1234</b>
3530 Wilshire Blvd., #141, LA, CA 90010
<b>GSK LLP Certified Public Acct. &amp; Business Consultants</b>
<b>강호석(상대 81)</b>
<b>T: 213-380-5060 (LA, CA)</b>
<b>T: 714-530-3630 (Garden Grove, CA)</b>
<b>JUN CHANG CPA &amp; Accounting Corp.</b>
<b>장 준 (인문 85)</b>
T: 818-722-2811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b>STANLEY Cha, CPA</b>
<b>차기민 (공대 85)</b>
<b>T: 818-772-2811, 213-272-2460 / jun@junchangcpa.com</b>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b>임춘택 공인회계사</b>
<b>임춘택 (상대 68)</b>
<b>T: 213-380-4646</b>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b>김원철 &amp; 황기주 공인회계사</b>
<b>김원철 (농대)</b>
<b>T: 213-380-4646</b>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b>권국원 공인회계사</b>
<b>권국원 (공대)</b>
<b>T: 213-480-0070 / kkwuncpa@yahoo.com</b>
869 Irolo St., LA, CA 90005
<b>기계 / 기술 / 전자</b>
<b>Link TV Media</b>
<b>김원탁 (공대 65)</b>
<b>O: 818-514-6780 / M: 818-720-2373</b>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linkboxusa@gmail.com / www.linkboxusa.com
<b>Turbo Air, Inc.</b>
<b>서치원 (공대 69)</b>
<b>T: 310-719-5422</b>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b>Tayco Engineering, Inc.</b>
<b>정재훈 (공대 64)</b>
<b>T: 714-952-2240 / jchung@taycoeng.com</b>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www.taycoeng.com

<b>마켓</b>
<b>Han Nam Chain Market</b>
<b>하기환 (공대 66)</b>
<b>T: 213-381-3610</b>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b>변호사</b>
<b>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b>
<b>한태호 (인문대 75)</b>
<b>T: 213-639-2900 / F: 213-639-2909</b>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b>신혜원 변호사</b>
<b>신혜원 (사대 81)</b>
<b>T: 213-385-3773</b>
3435 Wilshire Blvd., #2230, LA, CA 90010
<b>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b>
<b>이경희 (인문대 83)</b>
<b>T: 213-385-IMIN (4646)</b>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b>부동산</b>
<b>Team Spirit Realty</b>
<b>이종묘 (간호대 69), Jennie Lee</b>
<b>T: 714-396-0624 / jenniecee@gmail.com</b>
30 Corporate Park, Suite 207, Irvine, CA 92606
<b>식품 / 음식점</b>
<b>자연나라 (Jayone Foods, Inc.)</b>
<b>이승훈 (상대 74)</b>
<b>T: 562-633-7400</b>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b>해태 USA (Haitai Inc.)</b>
<b>정정우 (수외대 74)</b>
<b>T: 323-890-0101</b>
7227 Telegraph Rd., Montebello, CA 90640
<b>북창동 순두부</b>
<b>이태로 (법대 50)</b>
<b>B) (213) 382-6677</b>
357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b>의료 / 병원</b>
<b>Seoul Medical Group</b>
<b>차민영 (의대 76)</b>
<b>T: 213-480-7770</b>
520 S. Virgil Ave., #507, LA, CA 90006
<b>VIP 성형외과</b>
<b>최광휘 (의대 70)</b>
<b>T: 323-965-1717 / F: 323-965-1855</b>
4160 Wilshire Blvd., 2nd floor, LA, CA 90010
akchoi52@gmail.com
<b>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b>
<b>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b>
<b>Christopher K.Chung MD</b>
<b>T: 213-386-5002 / drcchung@yahoo.com</b>
2528 W.Olympic Blvd., #103, LA, CA 90006

<b>Beverly Cardiology Group</b>
<b>Il Young Kim MD (의대 65)</b>
<b>Diana Kim MD</b>
<b>T: 323-662-1175 / www.beverlycardiology.com</b>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b>정수만 암내과, 혈액내과</b>
<b>정수만 (의대 66)</b>
<b>T: 714-539-6414</b>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b>의료 / 치과</b>
<b>황준오 DDS</b>
<b>황준오 (치대 73)</b>
<b>T: 408-732-0493</b>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b>Seonho Ha Prosthodontics</b>
<b>하선호 (치대 81)</b>
<b>T: 213-365-1008 / ddshp@yahoo.com</b>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b>의료 / 동물병원</b>
<b>Animal Medical Clinic</b>
<b>신동국 (수외대 76)</b>
<b>T: 714-990-1411</b>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b>Francis Animal Hospital</b>
<b>최재현 (수외대 66)</b>
<b>T: 909-627-0951 / 909-627-0715</b>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b>Richmond Veterinary Hospital</b>
<b>한상봉 (수외대 67)</b>
<b>T: 510-232-3465</b>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b>Van Buren Animal Hospital</b>
<b>오영문 (수외대 64)</b>
<b>T: 951-687-2630</b>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b>유통 / 운송 / 원자재</b>
<b>SeAH Steel America, Inc.</b>
<b>이병준 (상대 55)</b>
<b>T: 949-655-8000</b>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b>자동차 / 서비스</b>
<b>A.P.W. 자동차 부품</b>
<b>서동영 (사대 60)</b>
<b>T: 310-753-9636</b>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b>기타</b>
<b>ACCU Construction, Inc.</b>
<b>염동해 (농대 74)</b>
<b>T: 714-641-4730</b>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b>라 캐나다 한인교회</b>
<b>독고원 (공대 65)</b>
<b>T: 818-790-7320</b>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b>San Bernardo Foot Clinic Inc.</b>
<b>이상대 (농대 80)</b>
<b>B: 909-882-3800 / C: 714-323-8612</b>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rdino, CA 92404
<b>뉴욕   NY-NJ</b>
<b>공인회계사</b>
<b>KL CPA &amp; Associates LLC</b>
<b>이경림 (상대 64)</b>
<b>T: 212-768-9144</b>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http://klcpagroup.com/klcpa/
<b>리테일</b>
<b>New York Golf Center</b>
<b>이전구 (농대 60)</b>
<b>T: 212-564-2255</b>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www.nygolfcenr.com
<b>변호사</b>
<b>신응남 변호사</b>
<b>신응남 (농대 70)</b>
<b>T: 718-463-3131 / petershinesq@gmail.com</b>
158-14 Northern Blvd., 2F., # UL-2, Flushing, NY 11358
<b>금융</b>
<b>Edward Jones Investments - Financial Advisor</b>
<b>윤의규 (상대 82)</b>
<b>T: 201-978-7055</b>
560 Sylvan Ave suite 3270, Englewood Cliffs, NJ 07632
edwardek.yun@edwardjones.com
<b>의료 / 병원</b>
<b>백승원 위장내과</b>
<b>백승원 (의대 73)</b>
<b>T: 201-302-9774 / 732-744-9090</b>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b>석창호 위장내과</b>
<b>석창호 (의대 66)</b>
<b>T: 718-461-6212</b>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b>이창석 내과</b>
<b>이창석 (의대 72)</b>
<b>T: 718-762-4400</b>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b>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b>
<b>김해암(의대 53)</b>
<b>T: 212.879.2322</b>
230 East 73rd Street Suite 1A New York, NY 10021
E-mail : haeahm@aol.com

<b>박범열 소아과</b>
<b>박범열 (의대 75)</b>
<b>T: 718-229-1188 / 718-899-4600</b>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b>박종호 소아과</b>
<b>박종호 (의대 79)</b>
<b>T: 201-242-1002</b>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b>윤세웅 비뇨기과</b>
<b>윤세웅</b>
<b>T: 718-335-3333</b>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b>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b>
<b>김승호 (공대 71)</b>
<b>T: 718-463-0001</b>
44-04 21st Street. Queens NY 11101
jeewha@hotmail.com
<b>김치갑 통증병원</b>
<b>김치갑 (의대 73)</b>
<b>T: 201-541-1111</b>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b>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b>
<b>김승관 (의대 70)</b>
<b>T: 718-321-2870</b>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b>의료 / 치과</b>
<b>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b>
<b>김성래 (치대 76)</b>
<b>T: 201-750-0011</b>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b>의료 / 동물병원</b>
<b>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b>
<b>김기택 (수외대 81)</b>
<b>T: 201-814-0095</b>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b>유통 / 네일제품</b>
<b>Kiss Products, Inc</b>
<b>김광호 (문리 62)</b>
<b>(516)625-9292/ (516)625-5599/1962</b>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www.Kissusa.com / cfo@kissusa.com
<b>워싱턴 DC   MD-VA-MN</b>
<b>기계 / 기술 / 전자</b>
<b>Drivotech, Inc.</b>
<b>엄달용 (공대 69)</b>
<b>T: 703-489-2474</b>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otechinc.com
<b>김권식 (공대 61)</b>
<b>T: 612-961-6878</b>
10025 Valley View Rd Ste 140, Eden Prairie, MN 55344
www.EVS-ENG.com

<b>식품 / 음식점</b>
<b>우래옥</b>
<b>백행남 (문리 60)</b>
<b>T: 703-827-7300</b>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www.woolaeoak.com
<b>재정 / 보험 / 컨설턴트</b>
<b>C &amp;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b>
<b>정세근 (자연대 82)</b>
<b>O: 703-663-8400 / C: 703-785-8467</b>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b>Fairway Asset Corporation</b>
<b>남욱현 (경영대 84)</b>
<b>T: 301-279-6969</b>
15400 Calhoun Drive, Suite 120 Rockville, MD 20855
www.facloan.com
<b>필라델피아   PA</b>
<b>건축</b>
<b>Timothy Haahs &amp; Asso.</b>
<b>손재욱 (생활과대 77)</b>
<b>T: 484-342-0200</b>
550 Township Line Rd., #100, Blue Bell, PA 19422
www.timhaahs.com
<b>의료 / 치과</b>
<b>Blue Bell Family Dentistry</b>
<b>김순주 (치대 95)</b>
<b>T: 610-278-1110</b>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b>식품 / 음식점</b>
<b>이즈미 일식당</b>
<b>최종문 (공대 61)</b>
<b>T: 267-408-7342</b>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b>오레곤   OR</b>
<b>엔지니어링</b>
<b>Flonomix Inc.</b>
<b>박희진 (농대 78)</b>
<b>T: 503-648-0775</b>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www.flonomix.com
<b>기타</b>
<b>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육 센터</b>
<b>서울대 언어교육원</b>
<b>T: 82-02-880-5488</b>
klp@snu.ac.kr

## SNU Alumni Association USA

Tel: 718-463-3131  
 Fax: 718-463-6789  
 news@snuua.org



###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200 <input type="checkbox"/> \$500 <input type="checkbox"/> \$1,000 <input type="checkbox"/> \$ _____	<input type="checkbox"/> \$75 (2020. 7 ~ 2021. 6) <input type="checkbox"/> \$150 (2020. 7 ~ 2022. 6) <input type="checkbox"/> \$3,000 (중신이사회비)	<input type="checkbox"/> \$240 (2020. 7 ~ 2021. 6) <input type="checkbox"/> \$480 (2020. 7 ~ 2022. 6) 일반 광고 문의: news@snuua.org	<input type="checkbox"/> Scholarship Fund (장학금) \$ _____ <input type="checkbox"/> Charity Fund (나눔) \$ _____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 _____ <input type="checkbox"/> 모교발전기금 \$ _____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중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USA.**

보낼 곳: SNUAA-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 Suite UL-2 Flushing, NY 11358 | Tel: 718-463-3131 Email: news@snuua.org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서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체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Cell Phone:		
주소:		*주소가 바뀔경우에만 기입 바랍니다.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 동문의 역사 기록입니다.

제15대 미주동창회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전화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S.CA/NV	회장 최용준 (수의대)	818-450-7868	yongjunechoi6080@yahoo.com	Feb-Jan
	차기회장			
북가주 SAN FRANCISCO	회장 임준원 (공대 77)	408-220-4260	joonwim@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최승희 (사회 81)	408-313-4239	shechoi01@gmail.com	
뉴욕 NY/NJ	회장 조상근 (법대 69)	201-913-0565	amcoinc@msn.com	July-Jun
	차기회장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김정선 (문리 66)	617-780-7205	jkim@systemic.com	Jul-Jun
	차기회장 김유경 (음대 72)	781-223-4411	YkimLC@yahoo.com	
북텍사스 LA/DALLAS	회장 강성호 (수의 81)	214-215-4447	oah9999@yahoo.com	Jan-Dec
	차기회장			
룩키아몬틴스 MT/CO/WY/NM	회장 최용문 (공대 77)		ymcgreencorp@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차재호 (농공학 84)	651-769-5343	jaehocha@yahoo.com	Jan-Dec
	차기회장 용정식 (농화학 86)	610-952-3673	jjyong@umn.edu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유재호 (공대 90)	469-387-7922	blue9071@gmail.com	Nov-Oct
	차기회장			
시카고 IL/IN/WI/MI	회장 김윤하 (공대 66)	847-726-0528	yunhakim@comcast.net	Jan-Dec
	차기회장 김승주 (간호 69)	630-341-1943	seungjoochang@gmail.com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 (공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차기회장			
앨래스카 ALASKA	회장 윤재중 (농대 55)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차기회장			
오레곤 OR/ID	회장 전병택 (상대 65)		bryanchon@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성우 (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차기회장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박상근 (법대 75)	703-425-9390	sangkuenpark@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워싱턴 주 WASHINGTON	회장 이명자 (간호 74)		drmialee@gmail.com	Jan-Dec
	총무 임현민 (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섭 (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an-Dec
	차기회장			
조지아 GA/AL/MS	회장 김재호 (공대 80)	404-372-2621	jhkros@gmail.com	
	차기회장			
중부텍사스 MID-TEXAS	회장			
	차기회장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지흥민 (수의대 61)	215-512-9510	hmchi8760@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이성숙 (가정 74)	610-417-4789	ssh1120@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최희덕 (사대 68)	973-610-5857	lee07073@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지원식 (공대 85)	919-913-5570	wschee@gmail.com	
	차기회장			
커네티컷 CT	회장 유시영 (문리 68)	203-305-3910	t60syu@gmail.com	
	차기회장 박용해 (상대 83)	203-767-8187	yhptax@gmail.com	
테네시 TENNESSEE	회장 김상호 (공대 86)	856-386-1094	kimsh@ornl.gov	Jan-Dec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 (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총무 전수진 (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들랜드 IA/MO/KS/NE/AR/OK	회장 이지현 (약대 77)	913-814-9452	leech@umkc.edu	Sep-Aug
	차기회장			
휴스턴 HOUSTON	회장 구자홍 (상대 70)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Jan-Dec
	부회장			
캐나다 밴쿠버	회장 조석기 (상대 71)		skeycho@gmail.com	Jan-Dec
	부회장		skeycho@gmail.com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종기 (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역대회장**  
박윤수 (문) · 강수상 (의) · 이병준 (상) · 오인석 (법) · 이용락 (공)  
오홍조 (차) · 이영목 (공) · 이진구 (농) · 송순영 (문) · 김은중 (상)  
오인환 (문) · 손재욱 (가정)  
명예회장: 윤상래 (수)

**제15대 회장: 신응남 (농)**  
고문: 박중수 (수), 주중광 (약)

차기회장: 노명호 (공)  
Brain Network 공동 위원장: 하용출 (문), 이강원 (공)  
Brain Network 공동 부위원장: 조달훈 (사), 박영철 (농)  
Corporate Counselor: 최형무 (법)

**집행부**  
사무총장: 연영재 (공)  
총무 국장: 문현호 (음), 간사: 이지희  
재무 국장: 한경진 (음)  
IT 국장:  
업무 국장: 연영재 (공)  
섭외 / 홍보 국장: 유시영 (문)  
조직 및 광고국장: 백옥자 (음)  
문화 국장: 홍선례 (음)

**회보 발행인: 신응남 (농), 편집인: 오치주 (농)**  
편집 고문: 광상희 (문), 이희만 (간)  
편집장: 박정원  
편집 위원: 추재욱 (의), 최철용 (농), 최한용 (농), 연봉원 (문)  
송용길 (신문), 조달훈 (사), 최형무 (법), 이수호 (보)  
백옥자 (음), 홍선례 (음), 문현호 (음), 한경진 (음)

지역 기자단: 홍선례 (LA), 백옥자 (LA)

**논설 위원장: 이항렬 (법)**  
논설 위원: 김 영 (수), 김해암 (의), 정태영 (문), 박평일 (농), 고병철 (법), 백 순 (법), 장동만 (문), 김창수 (약), 민경훈 (법), 유재중 (법), 연봉원 (문), 이채진 (문), 장석정 (법), 정홍택 (상), 조동준 (의), 차민영 (의), 최용완 (공), 하용출 (문), 김홍목 (문), 김재훈 (공), 김지영 (사), 최형무 (법), 이종호 (인)

**회칙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현 (상), 서종민 (공), 이강원 (공), 조정현 (수), 이민연 (법), 한재은 (의), 함은선 (음)

**미주동창회 후원위원회: 위원장**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목 (수)  
나눔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공)

**동창회 운영기금 century foundation 관리 위원회: 위원장 손재욱(전회장)**

**장학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농), 부위원장: 김승호 (공)**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강에드워드 (사)

**포상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회장)**  
위원: 각 지부 회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감사: 김명승 (상), 강호석(상)





Red Wing, Minnesota, USA  
 Developer: IPS Solar  
 Engineering: EVS, Inc.

# SOLAR DEVELOPMENT

태양광사업에 관심있으시나요?

- Commercial & Industrial Buildings 에 태양광 설치
- Green & Brown Fields 에 태양광 설치
- 태양광 사업에 투자
- 태양광분야의 전문가 모집 (전기, 기계, 토목, 구조 분야)



미국에서 앞서가고있는 태양광기업 (EVS, Inc) 에 연락주세요.



김권식대표(공대 61)  
 dkim@evs-eng.com  
 (612) 961-6878